

통성경 프로그램을 통한 MZ세대의 신앙교육 적용방안

: 기독교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조계현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3년 5월

Copyright © 2023 Gyehyeon Jo

All rights reserved.

## ABSTRACT

### **MZ GENERATION'S APPLICATION OF FAITH EDUCATION THROUGH TONG BIBLE PROGRAM**

**: FOCUSING ON THE FIELD OF CHRISTIAN EDUCATION**

Gyehyeon Jo

Jangsung Church, Pohang, Kyungsangbuk Do, Korea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e of faith in the MZ generation and to study the application of faith education for the MZ generation. I was ordained by the Korean Christian Unified Church and experienced as an educational pastor teaching the next generation in various fields. I observed the wrong aspects of church education being followed, and saw that the answers to them have been continued. However, in the flow of changing generations, Christian education was not easy to keep up with the flow of society, and I have personally experienced that it always lags behind and drives many of the next generation out of the church.

It can be said that it is an important task for Korean churches to connect generations to generations to face the generational change, to understand the MZ generation, which can be called the middle generation, and to prepare a plan for faith education for them. Therefore, the whole Bible program was presented for religious education for the MZ generation. Seeing the Bible the Tong Bible, perspective which is tied into one frame through a holistic, synchronic, and diachronic method, was in lin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MZ generation. In addition, in the course of the research, I was able to be sure that the Tong Bible was the alternative linking not only the MZ generation but all generations. In the field of church education, through the Tong Bible program, it was confirmed that communication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can be

done through the Bible, not through play. Without ignoring the cultural keyword of communication, it was possible to find a link between generations through a communication tool called Tong Bible.

This thesis examines how the Word of God works transcending generations and suggests that the most basic means of revelation is the Bible. And, the Bible contains the heart of God, and the means to convey the heart of God best to this generation is the Tong Bible. Furthermore, all Christians must return to the Bible again, and the passage through which we can recover as a good community in this world will be the Tong Bible.

국문초록

## 통성경 프로그램을 통한 MZ세대의 신앙교육 적용방안

: 기독교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조계현

장성교회, 경북 포항

본 논문의 목적은 MZ세대 신앙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MZ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적용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인은 한국 기독교 통합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다양한 현장에서 다음세대를 가르치는 교육목사로의 경험을 하였다. 답습되고 있는 교회교육의 잘못된 모습을 관찰하였고, 이에 대한 해답이 이어져 왔음을 보았다. 그러나, 변화되는 세대의 흐름속에 기독교교육이 사회의 흐름을 따라잡기 쉽지 않았고, 항상 뒤쳐져서 많은 다음세대를 교회밖으로 내몰게 만드는 것을 몸소 체험해왔다.

세대의 변화를 직시하고 특히 중간세대라고 할 수 있는 MZ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신앙교육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한국교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MZ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을 위해 통성경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통전적, 공시적, 통시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의 틀로 묶는 통성경의 성경을 보는 관점은 MZ세대의 특징에 부합되었다. 뿐만 아니라 연구과정 가운데 MZ세대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연결 짓는 대안이 통성경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교회교육 현장에서 통성경프로그램을 통해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이 놀이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소통이라는 문화의 키워드를 무시하지

않고 통성경이라는 소통의 도구를 통해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다.

본 논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대를 초월하여 어떻게 역사하는지 살펴보고 그 수단이 가장 기본적인 계시수단인 성경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 세대에 전할 수 있는 수단이 통성경이라고 본다.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며, 이 세상에 선한 공동체로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통성경이 될 것이다.

## 목차

표 목차.....	ix
그림 목차.....	x
감사의 글.....	xii
I.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II. 세대(generation) 이해.....	5
밀레니얼 세대의 이해와 특징.....	5
Z세대의 이해와 특징.....	9
MZ세대의 이해와 특징.....	14
성경의 세대이해.....	20
III. 통성경(tong Bible) 이해.....	23
통성경이란.....	23
통성경의 성경적 개념 이해.....	27
통성경의 신학적 개념 이해.....	29
통성경의 목회적 개념 이해.....	33
IV. 통성경(tong Bible) 프로그램 방법.....	38
통성경을 통한 통전적 성경공부.....	38
통성경을 통한 공시·통시적 성경읽기.....	44
통성경을 통한 문화이해와 통합.....	47
통성경을 통한 공공성 회복.....	50

V. MZ세대 신앙교육을 위한 현장 별 통성경 프로그램 적용.....	53
교회학교 교사에게 통성경 프로그램 적용.....	53
교회학교 학생에게 통성경 프로그램 적용.....	71
가정에서 통성경 프로그램 적용.....	80
VI. 결론.....	87
연구요약.....	87
결론과 제언.....	88
참고문헌.....	90
부록 .....	92



## 표 목차

<표1>통성경화란.....	24
<표2>바이블 통트랙스7.....	34
<표3>구약 통성경의 실제.....	39
<표4>신약 통성경의 실제.....	41
<표5>통(通) 성경 강의자세.....	62
<표6>장성교회 고등부 바이블 통트랙스 성경공부.....	72
<표7>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365일로 공부하기.....	82

## 그림 목차

<그림1>밀레니얼 세대의 자동차 선호도.....	7
<그림2>Z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10
<그림3> 연령별 스마트폰 보유율변화.....	11
<그림4>국내서 가장 오래 이용하는 앱은.....	13
<그림5>세계 18개국 행복도 조사.....	15
<그림6>기독교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18
<그림7>성경의 세대 구분.....	22
<그림8>온라인 예배에 대한 인식.....	49
<그림9>고등부 교사 공과진행 형태.....	54
<그림10>공과 진행 여부.....	55
<그림11>공과공부 미 참석 이유.....	56
<그림12>교회학교 교사 연임을 계속하고 싶은가.....	57
<그림13>고등부 교사 연령대 분포도.....	59
<그림14>고등부교사 외 사역현황.....	60
<그림15>교사 성경공부에 대한 필요성 조사.....	61
<그림16>통(通)성경 길라잡이.....	64
<그림17>통성경길라잡이를 통한 교사들의 변화.....	70
<그림18>고등부 학생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도.....	74
<그림19>통성경프로그램 이수 후 성경에 대한 이해도.....	75
<그림20>통성경프로그램 이수 후 하나님에 대한 인식 변화.....	76

<그림21>통성경프로그램 이수 후 예배 참석률 변화.....	78
<그림22>통성경프로그램 이수 후 온라인예배 선호도 조사.....	79
<그림23>통성경프로그램 전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현황.....	81
<그림24>가정 별 일주일간 통성경통독 실시현황.....	84
<그림25>통성경통독 진행 이후 변화된 점은.....	85

## ACKNOWLEDGEMENTS

Studying the Bible, which is all and part of the ministry, is probably the most important thing as a pastor. Completing my doctoral project through the Tong Bible was the most special, proud and precious thing in my ministry. At this moment when I am writing a letter of thanks, I give glory to God with overwhelming emotion.

I would like to thank Pastor Seok-Jin Park of Pohang Jangseong Church for allowing me to study for Doctor of Ministry. Also, thank you to all the members of Pohang Jangseong Church who supported me, prayed for me, and supported me physically and mentally.

I would like to thank Professor Byeongho Zoh for opening my eyes to a new, deeper world of the Bible through lectures I had never experienced before, and Professor Leonard Sweet for broadening the horizons of theology through lectures that added depth to my spirituality. I would like to thank Professor Younglae Kim for guiding me to complete the thesis, filling in the missing parts, and helping me to write a complete thesis.

Although there are times when it is tiring and difficult when writing a project in the ministry field,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and love to my wife Son Shin-ae, who has always been by my side and added strength with love and devotion. When I was struggling to write under the lights at night, seeing my son and daughter asleep gave me strength again.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again to my two beloved children.

## I. 서론

### 문제 제기와 연구의 필요성

우리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상에 살아간다. 개인의 삶은 개인이 책임지는 것을 기초로 한 사회다. 그것은 곧 개인의 죽음조차 타인이나 국가가 책임지거나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사회다. 이는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성이 필연인 사회를 강화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사회성은 세대가 변할 때마다 개인주의의 범위를 더욱 확장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코로나 19사태로 이런 현상을 더욱 심화되고 발전되고 문제화되고 있다. 이는 실제 다음세대들의 교회 이탈로 이미 드러나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세대는 일정한 세대를 지칭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MZ세대<sup>1</sup>를 중심으로 하여 현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문제점과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기중심성이 강한 MZ세대의 모습은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기성세대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성경을 모르고, 세상을 모른다고 일관한다. 그러나 그 반대의 모습은 아닐까? 기성세대가 MZ세대를 모르고, 세상의 변화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세상은 변하고 있다. 이미 손안의 디지털문화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며, 교회안에까지 흘러 들어와 교회문화를 잠식하고 있다. 우리

---

<sup>1</sup> MZ세대: 1980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디지털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장상식사전)

가 MZ세대를 알지 못하면 그들은 교회안으로 들어서지 않을 것이다. 이미 영상예배가 활성화되고 있고, 코로나19이후에도 이 현상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문화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세상의 디지털문화와 손 안의 인터넷은 이미 교회교육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문제시되고 있다. 이제는 교회가 이런 세대의 문화속에서 과연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때이다. 많은 일선의 교회학교교사들이 세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교회교육에서 문화에 빠져 잠들어 있는 아이들의 반응은 무관심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무관심한 다음세대들을 깨우는 길은 무엇일까? MZ세대의 문화에 젖어 든 학생들에게 이 시대에 맞는 신앙교육 방법은 무엇일까?

이에 연구자는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MZ세대의 성경읽기와 성경공부, 교육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세대적으로 변하고 있는 각 세대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에 맞는 공동체회복의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 시대는 길지 않고, 많은 것이 아닌, 복잡한 것이 아닌, 통으로 이루어진 짧은 것을 선호한다. 이에 성경전체를 하나의 이야기와 하나의 흐름으로 보는 조병호의 성경통독 프로그램은 이 세대에 적절한 가장 부합한 신앙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여겨진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공동체다. 교회도 공동체다. 교회공동체는 결코 자기 혼자 서 있을 수 없다.<sup>2</sup> 교회가 일어날 길을 결국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길 밖에 없다. 이는 개인주의흐름으로 진행되는 세상과 반대방향의 길이다.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힘들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다. 이에 통성경프로그램을 활용한 신앙교육은 세대가 요구하는 이 시대의 흐름과 유사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

<sup>2</sup> 장성운, *몰트만 신학에서 그리스도론과 교회론의 상관관계*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2), 110.

서 원하시는 현 세대의 교육방법으로서 큰 대안이 될 것이다. 코로나 19시대를 지나  
는 지금 이 세대는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세대의 회복과 세대와 세대간 연결 및  
하나님과의 연결, 그리고 공동체의 신앙회복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세대의 변화에 따른 세대별 특징과, 특히 MZ세대의 특징과 그에  
따른 교육의 적절한 필요성을 주장할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1장에서 오늘날 교회  
교육의 현재 모습을 조명하고 문제점을 제시하며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이다. 2  
장에서는 각 세대별 이해와 특징을 고찰할 것이다. 2장의 이론적 배경을 좀 더 자세  
히 서술하면, 각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 Z세대, MZ세대 3가지의 세대로 나누어 각  
세대 간의 특징과 공유하는 것과, 차이점을 설명할 것이며, 이것이 현세대에 주는  
의미를 알아볼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MZ세대를 정의하고 다  
양한 세대와의 연결고리를 알아본다. 3장에서는 MZ세대를 위한 통성경프로그램이 무  
엇인지 소개할 것이다. 통성경을 성경적, 신학적, 목회적 개념으로 나누어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려고 한다. 4장에서는 이해된 통성경을 통해 프로그램화 하  
여 성경공부와 성경읽기, 공동체 회복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5장에서는 앞서 연구한 모든 자료를 토대로 하여 현장에 접목하여 교육하고  
교육한 결과를 표와 그림으로 증명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장성교회 교회학  
교에서 시행한 통성경공부와 읽기방법을 과정별로 소개할 것이며, 주 교재와 부교재  
들의 유형을 통해 통성경현장 교육방법을 자세히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룰 통성경프로그램의 범위는 장성교회주일학교 커리큘럼과 자

체 제작한 교재로 제한한다. 이 논문은 연구를 위해 다음의 세가지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첫째, 이론적인 서술을 바탕으로 비교를 통한 차이점, 공유할 점을 제시하고, 목적과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과 교재, 그리고 결과물을 각종 도표와 그림 사진 등으로 시각화해서 제시할 것이다. 셋째, 통성경프로그램을 이수한 다양한 피교육자들을 선별해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그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 II. 세대(generation) 이해

### 밀레니얼 세대의 이해와 특징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MZ세대 신앙교육을 위해서 각 세대의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세대가 어디에서 끝나고 시작하는지는 명확하게 합의된 바는 없으며, 세대 구분을 위한 이름조차 명확하지 않다. 또한 세대의 구분을 위한 시기도 각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하지만 과거 세대를 구분하여 세대를 분석하는 일은 미래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린 랭카스더와 데이비드 스킬먼은 1946년 이전에 태어난 이들을 전통세대, 이후로 1964년까지 출생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 이후로 1981년까지 출생한 세대를 X세대, 그리고 2000년까지 출생한 이들을 밀레니얼 세대로 구분한다.<sup>3</sup> 먼저 밀레니얼 세대는 닐 하우, 윌리엄 스트라우스가 1991년 출간한 *Generations: The History of America's Future*란 책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이 세대는 시기적으로 1981년에서부터 1996년생까지를 밀레니얼 세대로 정의한다.<sup>4</sup> Y세대라고도 불리는 이 세대는 1960년대 중반에서부터 1970년대 사이에 출생한 X세대의 뒤를 잇는 세대이다. 구글세대, 에코부머 세대, 네트워크 세대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밀레니얼 세대는 시기상으로 독일의 통일과, 소련 붕괴로 탈냉전 및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의 개막, 9.11테러, 아프가니스탄전쟁, 2009년 세계경제침체까지의 시대상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OECD가입과 아시아 금융위기, 2002년

<sup>3</sup> 이은형, *밀레니얼과 함께 일하는 법* (서울: 옛워크, 2019), 22.

<sup>4</sup> 임홍택, *90년생이 온다* (서울: 웨일북, 2018), 51.

월드컵 개최까지의 시대상을 가지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아날로그 세대를 기억하면서 디지털세대로 완전히 넘어간 세대라고 볼 수 있다. 즉, 앞 뒤 세대를 공유하는 세대이다. 진보적이지만 보수적이면 일원적이지만 다원적인 세대이며, 긍정적이지만 부정적인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세대와 세대를 연결짓는 고리 역할을 경험한 세대이다. 각 세대는 각자의 모습으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세대에 일어나는 일들은 서로 공유된다. 밀레니얼 세대는 공유를 경험한 세대로서 이전세대와 다음세대를 이해하고 나아가 MZ세대를 교육하기에 유의미한 특징을 가진 세대라고 볼 수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유소년기부터 인터넷사용과 SNS 등 정보통신기술을 접하여 IT활용능력이 탁월하다. 이로 인해 대학진학률도 높다. 반면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접하여 고용감소 및 일자리 문제 등을 겪었고, 평균 소득이 낮은 사회생활을 겪었다. 소득이 적고, 금융적인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추구하고 투자 등은 꺼리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나라와 사회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된 시대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광고나 뉴스 등의 전통적인 정보보다는 개인적인 정보를 더 신뢰하는 특징이 있다.

밀레니얼 세대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볼 때 정신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은 세대, 혹은 가장 불안학 불행한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라는 기사가 많이 나타난다.<sup>5</sup>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세대인 것이다. 이것은 밀레니얼 세대가 추구하는 것이 행복임을 알 수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다음 자동차의 선호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SUV(sport utility vehicle)차량을 많이 선택한다.

---

<sup>5</sup> 바비 피더, *세대 감각* 이영래 역 (서울: 어크로스, 2022), 133.

〈그림1〉 밀레니얼 세대의 자동차 선호도<sup>6</sup>

**SK엔카 어플리케이션 '라이프엔카' 연령대별 선호 차종** (자료제공:SK엔카)

20대			30대			40대 이상		
순위	차종	비중	순위	차종	비중	순위	차종	비중
1	준중형	23.2%	1	중형	19.7%	1	SUV	22.7%
2	소형	20.0%	2	SUV	18.3%	2	RV	20.0%
3	중형	18.1%	3	준중형	17.2%	3	중형	19.8%
4	SUV	13.0%	4	RV	15.9%	4	대형	15.2%
5	RV	11.2%	5	소형	15.2%	5	준중형	9.4%
<small>(중복선택 포함)</small>			<small>(중복선택 포함)</small>			<small>(중복선택 포함)</small>		

자동차의 선호도에서 나타나는 이 수치는 밀레니엄 세대가 앞의 기성세대들보다 비교적 삶의 행복에 대한 의지가 큼을 알 수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기성세대이며 현재 세대(MZ세대)의 부모세대이다. 2022년 기준 30~40대의 젊은 부부를 말한다. 이들의 삶의 의지는 자녀세대로 연결되어진다. 밀레니얼 세대는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동체성보다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기성세대가 근면성, 안정성, 성실성을 중요한 가치로 두었다면, 밀레니얼 세대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관을 바탕으로 자율성, 독립성, 효율성 등을 중시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sup>7</sup>

위의 말처럼 밀레니얼 세대는 자기행복을 강하게 추구함을 통해 독립성을 강조한다. 독립성이 강하게 주장되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

<sup>6</sup> <https://blog.naver.com/happyjib/220004584824> [2022년 12월 16일 최종 접속].

<sup>7</sup> 인터넷 신박에듀 <https://edumon.tistory.com/613> [2022년 12월 16일 최종 접속].

다. 밀레니엄 세대의 영향을 받은 다음세대의 변화를 우리는 주시해야 한다. 교육과 사랑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밀레니엄 세대의 이해는 MZ세대 신앙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왜냐하면 세대는 돌고 돌기 때문이다.

공동체가 붕괴되면 사회적 치유력이 떨어진다. 건강한 공동체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며, 건강한 교회를 이룬다. 오늘날 다양한 세대에서 정신적인 문제와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동체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심리치료 산업이나 힐링 산업이 아니라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이다.<sup>8</sup> 각 세대마다 문제점들은 있다. 우리는 문제 많은 세대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 왜? 가 아니라,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세대별 대처점을 찾아야 한다.

밀레니얼 세대는 회사와 나를 동일시 여기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대이다. 밀레니엄 세대는 자기 취향에 맞는 소모임에 더욱 적극적이다. 자신의 의사가 분명하고, 스스로 납득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해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즉, 무조건적인 복종을 싫어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구약의 율법적인 구조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관계적으로 변화된다. 밀레니엄 세대는 마치 이런 구조속에서 태어난 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논리적이며, 감성적이며, 관계적인 세대로 넘어온 세대라고 하겠다. 이는 교육과정이 변한 한국인들의 변화속에서 적응한 이유가 있다. 이들은 계속적으로 적응해야 했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경험해야 했다. 그러므로, 사람들과 관계적인 면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선호한다. 디지털에 가깝지만 반면에 사람들과 접촉을 원하는 세대가 밀레니엄 세대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

<sup>8</sup> 김태형, *풍요중독사회* (서울: 한겨레출판사, 2022), 121.

사람들과 관계를 가볍게 가지기를 원한다.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가벼운 관계를 추구한다.<sup>9</sup> 전도서 1장10절의 말씀처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으며 모든 세대에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 공유되어 진다.

## Z세대의 이해와 특징

밀레니얼 세대에 이어 등장하는 세대가 Z세대(Generation Z)이다. 한국기준으로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sup>10</sup> 물론 이 또한 나라마다 상이하다. 왜냐하면 Z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스마트폰의 보급률에 따라 지칭하기 때문이다. Z세대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다양한 만남을 통한 경험을 추구한다. 참여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즐긴다. 영상 매체에 대한 감각이 발달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능숙하다.<sup>11</sup> 4가지 특징 중 온라인에 능숙한 Z세대는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의 발달은 Z세대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어릴 때부터 인터넷을 접하고, 그뿐 아니라 이동식 기기를 통한 네트워크사용은 삶의 형태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Z세대는 스마트폰을 들고 자랐다. 밀레니엄세대에 비해 디지털문화에 훨씬 익숙해진 세대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의 등장에 기존 기성세대는 대처하기에 어려웠다.

Z세대는 사춘기 무렵 금융위기를 겪었다. 그것은 한번도 경제의 호황기를 누려보지 못한 세대이다. 그 때문에 Z세대는 해외여행 같은 경험을 중요시한다. Z세대

<sup>9</sup> 김찬영, “2030밀레니얼 세대 가나안성도현상에 관한 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22, 15.

<sup>10</sup>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4871&cid=43667&categoryId=43667> 네이버시사상식사전 [2022년 12월 16일 최종 접속].

<sup>11</sup> 대학내일20대연구소,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0: 국내 유일 20대 전문연구소의 요즘 세대 본격 관찰기* (서울: 위즈덤하우스, 2019), 97.

에게 있어서 집과 자동차는 꼭 있어야 한다는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Z세대는 손에 핸드폰을 들고 여행을 하며 셀카를 찍는 세대이다. Z세대는 인터넷세대다. 어디에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세대다. Z세대는 인터넷을 통하여 소통한다.

〈그림2〉 Z세대 그들은 누구인가<sup>12</sup>

### Z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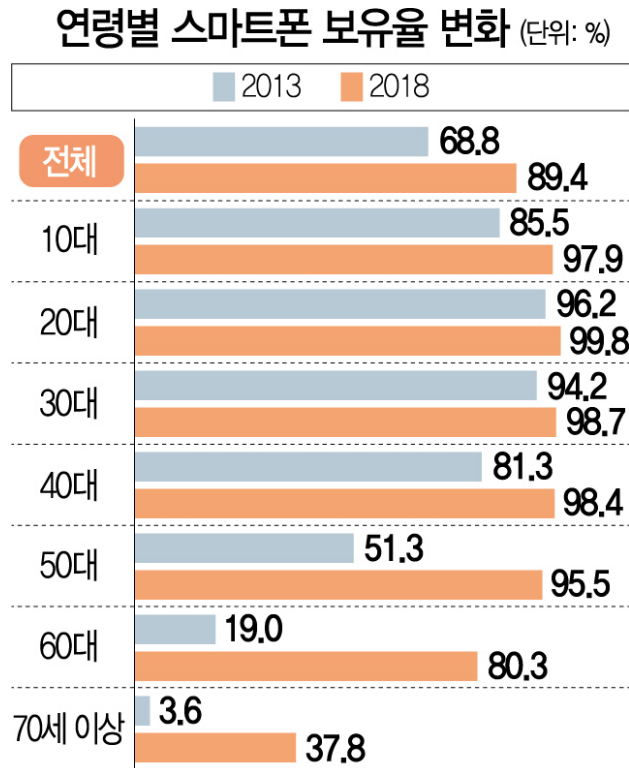
세대 구분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
출생연도	1950~1964년	1965~1979년	1980~1994년	1995년 이후
인구 비중	28.9%	24.5%	21%	15.9%
미디어 이용	아날로그 중심 (신문)	디지털 이주민 (TV)	디지털 유목민 (PC)	디지털 네이티브 (모바일)
성향	전후 세대 이념적	물질주의 경쟁사회	세계화 경험주의	현실주의 윤리 중시

핸드폰은 Z세대의 소유물이 되었다. 없어서는 안될 대체제가 되어 버린 것이다. 커피는 대신하여 음료를 마실 수 있지만, 주식인 탄수화물은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Z세대에게 있어서 스마트폰의 사용은 이제 대체품이 없는 필수적인 생활용품으로 자리 잡았다. 세대변화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유율 변화는 각 세

<sup>12</sup> 통계청, 맥킨지코리아 <https://publy.co/content/3450> [2022년 12월 19일 최종 접속].

대가 가지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그림3〉 연령별 스마트폰 보유율변화<sup>13</sup>



앞의 그림3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2018년기준 Z세대라고 할 수 있는 10대이후 세대들의 거의 100%에 육박하는 스마트폰 보유율을 볼 수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과 함께 한 Z세대는 자라면서 인터넷을 접했던 밀레니엄세대와는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문화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세대가 Z세대다. SNS가 삶이며 그로 인한 소통이 사회생활이다. 물론 앞선 세대에서도 인터넷디지털문화에 익숙한 것은 사실이지만, Z세대는 특히 온라인생활에 특화되어 있으며, 소비와 관계 등 많은 방면에서 이전세대와 차이점을 보인다.

<sup>13</sup> <https://www.sedaily.com/NewsView/1VMUP3XAJF> [2022년 12월 19일 최종 접속].

Z세대는 문화적으로 이전 세대들보다 훨씬 개방되어 있으며 동시에 자기의 개성을 표출하기 좋아하고 관심사나 소비활동, 가치관 등 자신의 성향을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예시로 SNS나 동영상 매체를 이용해서 불특정 다수와 함께 자기의 취미를 공유하는 것을 들 수 있다.<sup>14</sup>

Z세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공유다. 생각을 공유하고, 즐거움을 공유하고, 장소와 삶을 공유한다. 공유한다는 것은 예전에는 특정한 장소에 함께 있어야 공유가 가능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서로 함께 있어야 서로 대화와 생각을 나눌 수 있었다. 비록 전화와 편지와 전보 등과 같은 수단이 있었지만 전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은 힘들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등장과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 특히 와이파이의 대중화는 디지털 세상으로의 문을 열었다. 이것은 사람들을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특히, 대중화된 SNS는 전세계의 불특정 다수에 자기의 취미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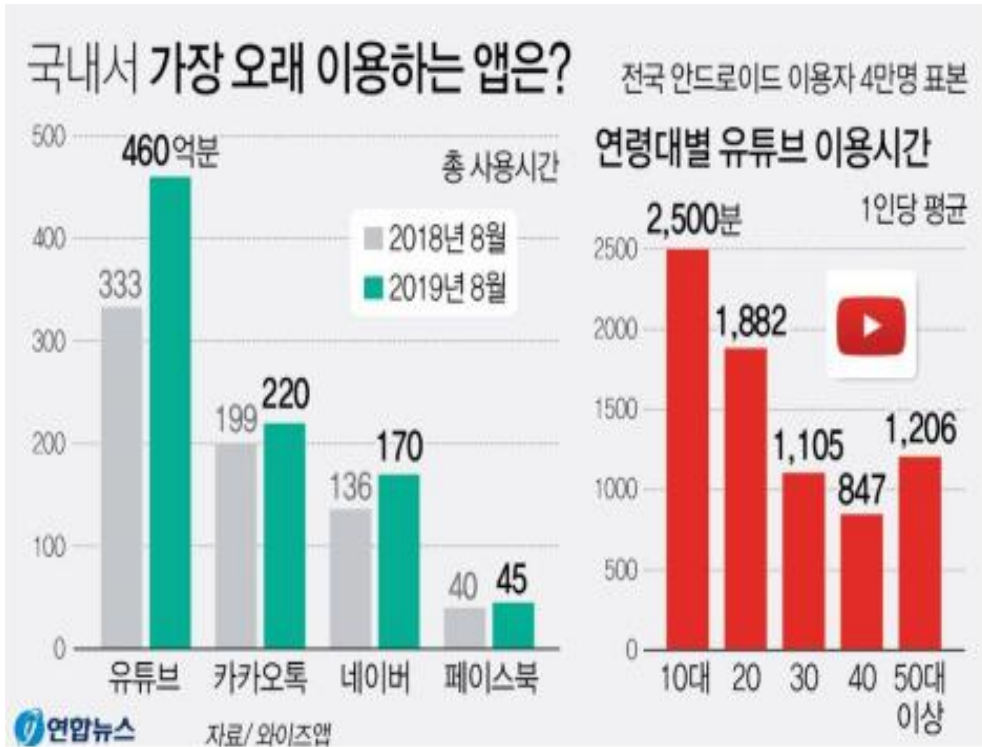
대중문화만 아니라 각종 예술과, 학술적 분야까지 가상공간에 전시되었고 공유하며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공유를 통한 교류는 Z세대의 상징성이 되었다. SNS를 통한 정보전달은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다. 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의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으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SNS를 통해 다수와 교류하나, 개인공간내에서의 활동은 공동체성과 개인주의의 회색지대에 있는 세대라고 볼 수도 있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 특징이 있다. Z세대는 재미를 추구한다. Z세대의 온라인 콘텐츠 소비형태를 볼 때 10대와 함께 유튜브 이용시간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받는 것만 아니라 개인의 여가시간을 유튜브를 통해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sup>14</sup> <https://namu.wiki/w/Z%EC%84%B8%EB%8C%80> 나무위키 [2022년 12월19일 최종 접속]



〈그림4〉 국내서 가장 오래 이용하는 앱은?<sup>15</sup>



Z세대에 유튜브 동영상은 재미를 넘어 삶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동영상에서 그들을 끄는 것은 감성이다. 감성이 발달한 Z세대에게는 본질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을 감싸고 있는 외형도 중요시한다. 이는 MZ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도 상당수 영향을 미친다. 신앙교육도 본질인 복음만 강조한다면 그들에게는 신선하게 다가갈 수 없을 것이다. 복음은 타협하지 말아야 하지만 복음을 감싸는 껍질은 우리가 시대감각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라나는 다음세대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sup>15</sup> <https://brunch.co.kr/@davidstoneho/89> [2022년 12월 19일 최종 접속].

## MZ세대의 이해와 특징

MZ세대의 뜻은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와 Z세대(Generation Z)가 합쳐진 합성어이다. 즉,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총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MZ세대가 단순히 두 세대를 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굳이 연령대를 구분한다면 MZ세대는 2022년을 기준해서 10대와 20대를 뜻한다. 즉 오늘날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 세대라고 보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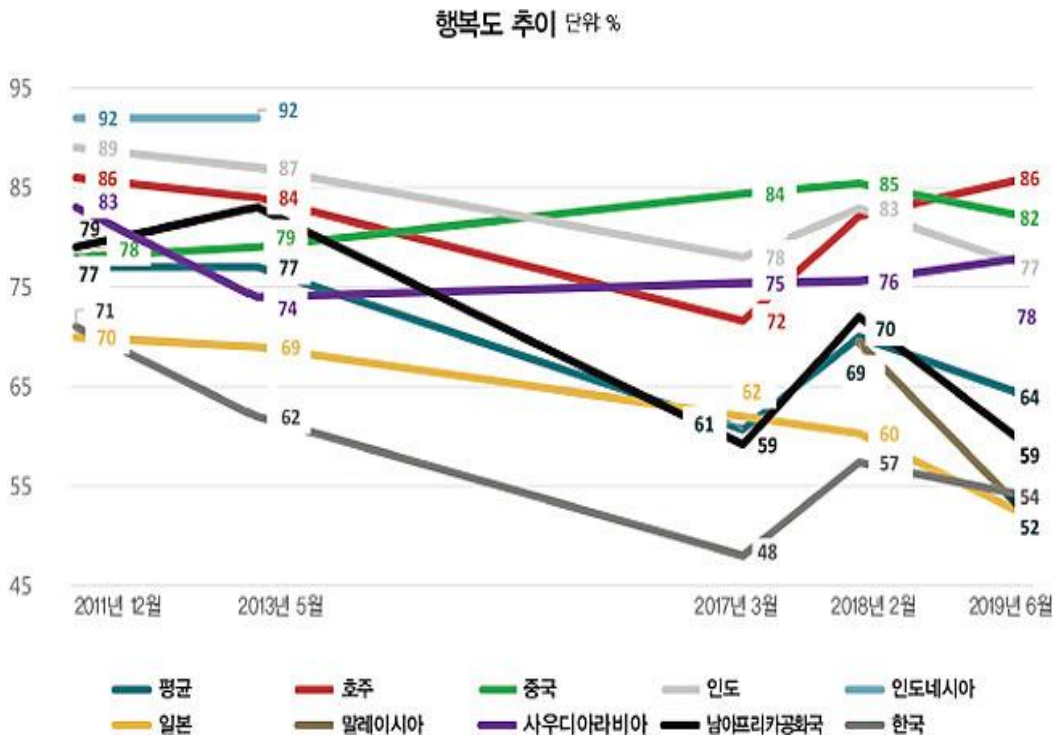
최근 ‘자신을 정의 내리고, 취향을 존중한다.’ 라는 말과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히 여긴다.’ 짧은 문구로 MZ세대를 정의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자신을 정의한다는 말의 의미는 남이 자신을 평가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규정해 자존감을 찾는 의식이 강하다는 말이다.<sup>16</sup>

위의 말처럼 MZ세대의 특징은 남이 자신을 평가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특징에서도 개인주의적 성향은 모두 가지고 있었다. MZ세대는 1인가구가 넘쳐나고 1인 미디어 등의 활성화로 이들의 삶의 형태가 개인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혼자인 것은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전에는 학교나 직장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을 이상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혼밥식당이 유행할 정도이다. 또한 MZ세대는 이전 세대가 사회적인 정의와 책임을 공감했으나 나서거나 활동하지는 않았다면, MZ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사회와 정치적인 관심을 더 갖고 참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MZ세대는 혼자인 것을 추구하면서도, 타세대와

<sup>16</sup> 박계현, “MZ세대의 미디어콘텐츠 소비 패러다임 연구 - 4차 한류와 레트로 현상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2021, 23.

는 다르게 공동체 참여도가 높다. 그것은 개인주의면이 강하지만, 삶의 전반적인 행복을 위해서 공동체 참여는 필수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세대라는 것이다. 이처럼 이전세대가 삶의 즐거움을 추구했다면 MZ세대는 삶의 행복을 추구한다. 이는 MZ세대에서 MBTI가 유행함을 볼 때 알 수 있다. MBTI는 MZ세대의 행복과 관련이 있다. 행복을 추구하는 MZ세대의 모습은 MZ세대가 낮은 행복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림5〉 세계 18개국 행복도 조사<sup>17</sup>



앞의 그림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세계 주요국가들의 행복도는 2011년 기점으로 중국을 제외하고 하락함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그 수치가

<sup>17</sup>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70> [2022년 12월 19일 최종 접속].

급감한다. 물론 이는 낮은 취업률과 치솟는 물가 등 경제적인 부분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본질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종합해보면 MZ세대는 자율성을 잃어버린 학창 시절에 남과 비교하기 쉬운 환경에 놓이면서 행복감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이 행복감은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을 떠나 나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심리적 욕구이기도 하다. 이제 MZ세대는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행복해지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sup>18</sup>

위의 말처럼 MZ세대는 비교세상에 사는 세대다. 비교는 행복감을 저해한다.

MBTI는 나와 너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다. 한사람의 본질을 이해하고 잃어버린 관계성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의 방편이다. 또한 관계성 회복의 노력은 MZ세대의 키워드 중에 하나인 스터디 카페(Study Cafe)<sup>19</sup>에서 드러난다. 이전에 독서실은 혼자만의 공간이었다. 칸막이가 설치된 독서실의 학습의 공간은 자기만의 개인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의 모습을 대변한다. MZ세대에 들어서면서 학교에서 시험평가보다는 조별과제의 비중이 늘어난다. 취업에서도 개인적 업무능력도 중요하지만 동료와 협업하면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많아졌다.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공부의 형태가 옮겨가면서 마냥 조용하기만 한 독서실은 공부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게 되었다. 독서실만큼 조용한 도서관 열람실도 마찬가지다. 결국 MZ세대는 카페로 나오기 시작했다<sup>20</sup>

<sup>18</sup> 김효정, *MZ세대 사용설명서* (과주: 넥서스BIZ, 2022), 70.

<sup>19</sup> Study Café는 ‘독서실’ 과 ‘카페’ 를 결합시킨 공간으로, 시간에 따른 요금을 지불한 뒤 해당 공간을 빌려 공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상업적 장소를 말한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98385&cid=43667&categoryId=43667> [2022년 12월 22일 최종 접속].

<sup>20</sup> 김효정, *MZ세대 사용설명서*, 196.

MZ세대는 혼자에서 여럿으로 변화하는 세대이다. 기존 기성세대가 개인주의로 점철되었다면 MZ세대는 다시 공동체성 회기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세대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교회가 세대변화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또한 현재 MZ세대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신앙교육에 점목 시킨다면 교회부흥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MZ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MZ세대가 왜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 살펴보는 것은 MZ세대의 현시대의 종교관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MZ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서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 중 하나는 교회가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이유를 든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현재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지나며 적절하지 못한 대응과 사회적 비난에 직면에 처한 상황에 대해 적지 않게 실망하였다고 한다. 또한 교회에서 청년들을 향해 헌신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다양한 행사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기성세대와 장년부 성도들이며, 뒤에서 행사설치, 정리, 청소 같은 일들은 청년들에게 일임되는 것이다. 또한 모든 예배와 시설들은 장년부 예배 중심으로 맞추어 있다. 쓰고 남은 것은 주일학교와 청년부로 보내어지곤 한다. 물론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지만, 그러한 형태의 교회분위기는 아직 잔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다음세대를 위한 실제적인 행동이다. 가정의 모든 제정 및 가정이 추구하고 이루고자 하는 삶의 방향은 결국 자녀들을 향해 맞추어 이뤄진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며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다. 교회의 사역의 방향성은 전도다. 전도가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전도를 위해 교회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전도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 교회마다 전도전략을 짜지만 많은 교회가 수평이

동을 하는 성도들을 잡기 위한 교회의 행사위로 진행된다. 전도가 어렵기 때문에 유지를 위한 투자인 것이다. 이처럼 전도가 어려운 시대에 전도를 위한 가장 좋은 전략이 무엇일까? MZ세대를 향한 투자다. MZ세대가 몰려드는 교회는 코로나19이후에 회복하는 교회로 세워질 것이다.

〈그림6〉 기독교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sup>21</sup>

5개 주제	15개 부제(하위요인)
개인 신앙 요인	• 신앙과 믿음의 부재
	• 영적 충전과 소진의 부조화
	• 재미를 잃은 신앙
목회자 요인	• 헌신과 열정을 강요하는 사역자
	• 사역자와의 관계에 대한 실망
	• 교회의 필요와 청년의 필요 사이의 부조화
공동체 관계 요인	• 갈등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공동체
	• 쉽지 않은 교회 적응
	• 위로의 상실
교회 문화 요인	• 일방적인 의사소통
	•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
	• 당연시된 교회 봉사
사회적 신뢰도 및 관계 요인	• 교회다움이 없는 교회
	• 사회문제를 대하는 교회의 태도
	•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

기독교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5개 주제 및 15개 부제(도표출처: 해당 연구논문)

<sup>21</sup> <https://www.theoslogos.com/entry/기독교청년들이-교회를-떠나는-이유> [2022년 1월 2일

코로나19 이후 MZ세대의 탈종교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 수많은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수많은 청년들이 기독교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위의 그림에도 나타나 있듯이 다양한 이유가 MZ세대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떠난 것이라고 한다.<sup>22</sup> 한국교회의 영적인 성장은 수적인 성장으로 점철되어 도리어 제도에 가뒤편되었다. 제도는 곧 권위로 나타난다. 실제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교회사역자들의 권위적인 태도라고 말한다. 지금 시대의 흐름은 탈권위로 흐르고 있다. 지금까지 교회는 사회의 흐름에 뒤늦게 대처해 온 것이 사실이다. 세상이 권위적이 되면 교회는 탈권위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또한 세상의 흐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MZ세대의 취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탈교회를 부추기고 이미 탈교회해 떠나 있는 다음세대를 교회로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강구할 수 없게 된다.

MZ세대는 믿는 것을 넘어 행동하는 세대다. MZ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신념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런 까닭에 그들의 눈에 비친 기성세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에 비해 위선적이다. 가치가 있고 그것이 신념이라고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다. 청년들은 그런 기성세대에 질린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청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성장하지 않거나 수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sup>23</sup>

MZ세대의 마음을 알아야 MZ세대가 돌아오고, 돌아온 MZ세대를 교육할 수 있다. 그들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몰라서, 신앙에 대해서 몰라

---

<sup>22</sup> 지용근 외, *한국 교회 트렌드 2023*(서울: 규장, 2022), 173.

<sup>23</sup> Ibid., 178.

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모르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는 것이다. 이제 교회는 MZ세대에 대해서 왜 떠나는가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한다.

그런데 청소년은 이미 어린이도 또 완전한 성인도 아닌 중간인의 위치에 있으므로 한편으로 기성세대에게 의존하고 싶은 무의식적 욕구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sup>24</sup>

MZ세대는 스스로는 완전히 성장한 세대라고 말하지만, 청소년 교육론에 의하면 중간세대로 볼 수 있다. 그것은 MZ세대가 기성세대를 부정하지만, 기성세대를 바라보고, 기성세대를 무의식 중에 닮아가고, 학습한다는 것이다. 이는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MZ세대에게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제도를 강요하면 멀어지지만, 그들의 자주성을 인정해주면서, 품어준다면 그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므로, MZ세대를 결코 하위문화로 보아서는 안된다. 하위문화는 사회 전체의 문화 가운데 한 부분을 이루는 문화라는 뜻이다.<sup>25</sup> 교회는 이제 MZ세대를 새로운 문화로 인식해야 한다. 교회와 세상의 새로운 발전과 시대변화를 위해서 MZ세대는 이제 없어서는 안될 문화의 전체로 자리잡게 되었다.

## 성경의 세대이해

<sup>24</sup> 권이종 외, *청소년문화론* (경기: 공동체, 2010), 19.

<sup>25</sup> Ibid., 25.



세대(generation)란 일반적으로 한사람의 일생을 주기로 약30년 정도의 시간을 뜻한다. 그에 반해 유대인들은 한 세대를 40년으로 잡기도 한다.<sup>26</sup> 성경에서 세대는 다양한 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모세시대에 본격적으로 세대의 의미가 만들어져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대중세까지는 혈통이 중심이 된 사회다. 근대와 현대에 와서 트렌드 사회로 변환 것이다. 여기서 ‘세대’란 말이 키워드가 되어 등장하였다. 모세를 통해 광야로 출애굽한 세대를 출애굽세대라고 칭한다. 만나세대는 출애굽 세대의 자녀들이다.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을 말한다. 출애굽세대와 만나세대는 통성경에서 만든 신조어이다.<sup>27</sup> 여기에서 출애굽세대와 만나세대의 차이가 단지 태어난 시기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행해진 교육 문이라고 통성경에서 말한다. 만나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받았다. ‘교육’이 만나세대와 이전세대와 다른 가장 큰 이유이다.<sup>2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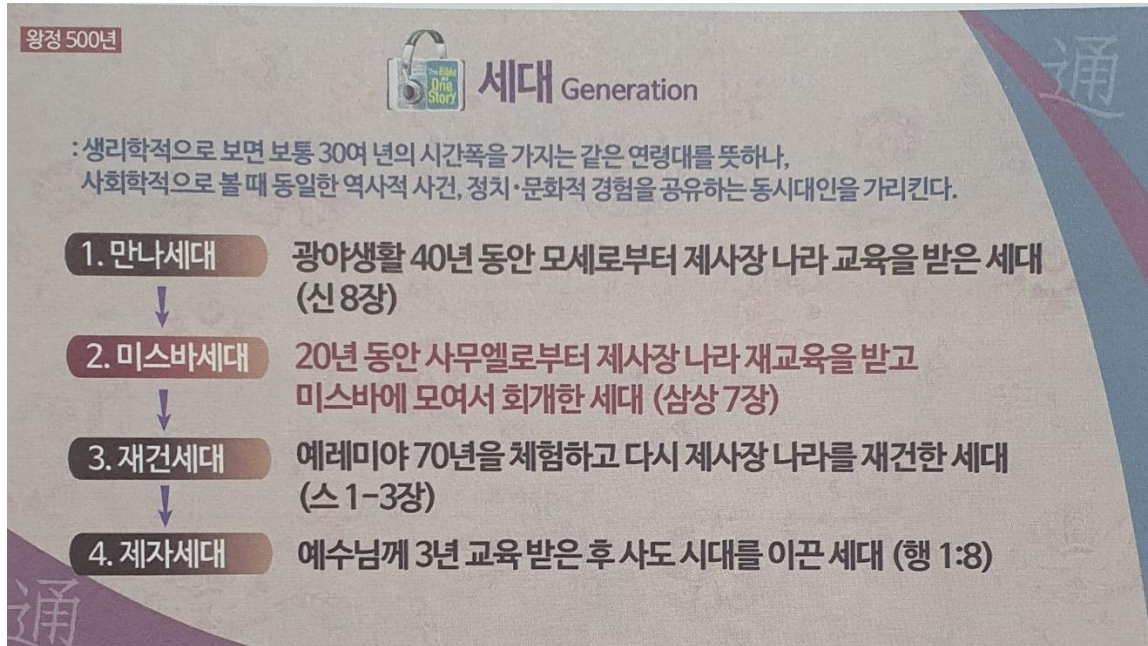
성경의 세대이해는 첫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조성하셨다. 그리고 아담이 그 말씀을 통해 창조된 아담이 이 세상에 첫 세대로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간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시대인지에 따라서 성경은 세대를 구분 짓는다. 출애굽세대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는 못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만나세대가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한다. 이는 출애굽세대와 만나세대를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말씀교육임을 알 수 있다.

<sup>26</sup>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393681&cid=50762&categoryId=51387> 라이프 성경사전 [2023년 3월10일 최종 접속].

<sup>27</sup> 조병호 *통성경길라잡이 지도자지침서* (서울: 통독원, 2020), 107.

<sup>28</sup> Ibid., 108.

〈그림7〉 성경의 세대구분<sup>29</sup>



만나세대부터 제자세대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교육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이처럼 말씀의 교육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다. 세상은 문화가 중심이 되어 세대를 구분 짓지만 성경의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다. 앞으로 다루어야 할 MZ세대의 신앙교육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sup>29</sup> Ibid., 166.

### Ⅲ. 통성경(tong Bible) 이해

MZ세대를 어떤 방법으로 신앙교육 할 것인가는 기독교신앙교육의 핵심과제이다. 본 연구는 MZ세대를 위한 신앙교육방법으로 조병호의 통성경프로그램을 제안한다. 통성경을 MZ세대와 연결 짓기 위해서는 먼저 통성경이란 무엇인지 그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 통성경이란?

통성경은 조병호 박사(이하 조병호)가 제안한 성경읽기와 성경 프로그램이다. 조병호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게 주신 성경은 한 권 이자, 동시에 66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창세기 첫 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즉,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한다.<sup>30</sup> 이처럼 성경 66권 전체가 중요함을 알고 성경을 부분이 아닌 통으로 보고 전체를 읽고 전체를 파악하여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물론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발견할 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마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전해진다.<sup>31</sup>

<sup>30</sup>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통독원, 2018), 9.

<sup>31</sup> 딤후3:16

바울은 한 장 한구절의 성경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유익하다고 말한다. 반대로 모든 성경을 유익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성경의 부분만을 강조하는 일이다. 조병호는 “모든 성경을 모든 성경 되지 못하게 한 중요한 원인은 아픈 쓴 소리가겠지만 성경 전문가로 특권과 사명을 동시에 받은 일부 설교자들이 언제부터인가 모든 성경보다 예화주의와 요절주의를 더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sup>32</sup> 성경의 요절은 좋은 것이지만 요절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할 수 있다. 예화는 이해하기 쉬우나 예화주의는 잘못된 이해로 우리를 이끈다. 이에 통성경은 부분과 파편적으로 흩어져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되어지는 성경을 하나로 묶어 성경 본연의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다문화적이고, 개인주의 만연한 오늘날 세대가 가지는 다양한 문제점을 통으로 묶어내는 방법으로, 다양한 세대를 연결하며 신앙교육을 증진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조병호는 성경을 통성경화해서 읽고, 가르치는 것을 21세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출구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표1〉 통성경화란?<sup>33</sup>

1	성경은 얇은 책입니다.
---	--------------

<sup>32</sup> Ibid. 여기서 예화주의란 ‘성경 이야기보다 더 많은 분량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만담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되는 것’, 요절주의란 ‘성경 전체 이야기가 아닌 성경의 어느 한 두 구절만을 요절로 삼아 외우면, 전후맥락을 모른 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벗어나 우를 범하게 되는 것’ 이다.(필자역주)

<sup>33</sup>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2), 10.

	성경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사랑과 진리를 담은 책의 두께 치고는 무척 얇습니다. 그래서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습니다.
2	성경은 소리 내서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문자로 담아낸 책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읽고 음성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소리 내어 읽으면 더욱 말씀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3	성경은 1년에 10번 통독할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1년에 10번은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4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입니다.
	성경은 온 세상을 담고 있으며 각 시대마다 함께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그 흐름에 따라 통으로 읽어야 합니다. 또한 통시적, 공시적 성격 읽기를 통으로, 서양의 분석적, 동양의 직관적 해석을 통으로 살펴 성경을 정경적이며 동시에 심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5	성경은 개인적, 가정적, 민족적, 모든 민족적인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해주신 내용부터 제국과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신 이야기까지 통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얇은 책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이 넓은 마음을 친구약 한권의 책에 담았다. 그러므로 조병호는 성경을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읽을 것을 말한다.

성경통독이란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보고,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동양의 삼국지나 서양의 로마제국 쇠망사를 읽는다면, 순서대로 첫 권부터 마지막 권까지 전체를 다 일거 내려가는 것처럼 말입니다<sup>34</sup>

성경은 한 구절이 주는 메시지도 있다. 한 장이 주는 메시지도 있다. 성경의 권이 주는 메시지도 있다. 그러나, 이런 부분적인 것들이 주는 메시지 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 수 없다. 조병호는 이런 일들을 영의 양식인 성경을 편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sup>35</sup> 전체를 반복하여 읽다 보면 전체의 큰 흐름을 파악하게 된다. 책을 앞장만 읽고, 중간을 읽고, 결론을 부분적으로 보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책의 전체를 다 읽고, 때로는 반복해서 읽다 보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게 된다. 성경을 읽되,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다 보면 성경에 대해서 놀라운 직관력이 생기게 된다. 성경은 소리 내어 읽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담아낸 책이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롬10:9-10)

---

<sup>34</sup> Ibid., 12.

<sup>35</sup> Ibid.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바울은 말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말씀은 말하는 것이다. 조병호는 성경을 통으로 읽어 내려가야 한다고 말한다. 읽어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통성경은 성경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다.<sup>36</sup>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다. 설교는 하나님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간혹 설교에 성경구절을 많이 인용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성도들이 있다. 성경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무리 성경구절을 많이 가지고 와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곡해되어 전달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읽기는 성경지식을 쌓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읽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읽는 것이다. 설교는 성경지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파악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경읽기가 되는 것이다.

### 통성경의 성경적 개념 이해

통성경은 MZ세대의 신앙교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경프로그램이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마갈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6:7~9)

---

<sup>36</sup> Ibid., 13.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다음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된 것이 아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법을 40년간 가르쳐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뜻을 성경에 기록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때문에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믿음이 자라게 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마침내 세상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반드시 성경을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께 도움받는 인생이 되게 해야 합니다.<sup>37</sup>

조병호는 자녀가 만 5살이 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sup>38</sup>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세상을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성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이 통으로 엮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혈혈단신으로 애굽에 들어가서, 장정만 해도 60만 명에 이르는 자기 민족 전체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일을 해냈습니다. 믿음 있는 한 사람은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고, 제국과 맞서 싸워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sup>39</sup>

---

<sup>37</sup> 조병호,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서울: 통독원, 2012), 18.

<sup>38</sup> Ibid.

<sup>39</sup> Ibid.



조병호가 말하는 것처럼 모세는 역사적인 일을 이루어 당시 모든 이스라엘 세대의 승리는 가져오게 하였다.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성경에 입각한 시대정신을 가지고 세대라는 제국과 맞서 싸워 승리한 것처럼 통성경으로 시대정신을 바라보는 MZ세대는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그리고 이 세상의 지식, 재물, 명예, 권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다.<sup>40</sup> 즉, 성경은 통으로 엮여진 하나님의 스토리이자, 인간의 스토리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알게 된다면 이 세대는 모세의 세대와 마찬가지로 세대를 가로지르는 출애굽의 역사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조병호가 발전시킨 통신학이란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성경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통독은 통신학의 필수적인 조건이자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통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학의 근거가 되는 성경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sup>41</sup>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에게 전달된다. MZ세대는 전세계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활동하지만, 인터넷이라는 온라인가상공간속에서 하나가 된다. 마찬가지로 통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훈련을 가지게 된다면 MZ세대의 마음을 잡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통성경의 신학적 개념 이해

<sup>40</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16), 7.

<sup>41</sup> 방대현, “어린이 성경통독에 관한 연구,” 목회학박사학위논문, 드루대학교, 2019. 9.

통通이라는 글자는 통달, 소통 등과 같이 통하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조병호가 말하는 통이란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을 인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지칭하는 새로운 단어로서, 하나의 사유 대상에 대한 두 가지 이상의 접근 경로를 섭렵<sup>42</sup>하는 인식의 방법이다. 즉, 통通은 통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표현되는 것으로 많이 쓰였지만, 조병호는 통을 사물에 대해 온전히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사물을 바라보는 것은 자신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눈으로 대상과 사람을 본다. 또한 자신이 가진 불안의 정도에 따라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내가 불안하면 주변의 모든 것을 불안한 관점에서 보게 되어, 과거는 말할 것도 없고 미래도 불안한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된다<sup>43</sup>

위의 말처럼 모든 사람은 자신의 눈으로 사람을 본다. 세상을 본다. 통신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통으로 바라보며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간을 통으로 알아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와 객체 양자 간의 소통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통通신학은 ‘통通’과 ‘통通으로 보다’라는 말의 의미를 성경읽기 방식에 적용시킨 기독교 경전해석의 방법론이다.<sup>44</sup> 우리는 성경을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각도를 통해 조명한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본래 의도하는 목적과는 상반된 결과를 도출할 때가 있다. 통신학은 이러한 여러 관점들을 종합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는 방법이 통신학이다.

---

<sup>42</sup> Ibid., 67.

<sup>43</sup> 임경수, *마음에 집이 없는 사람들* (서울: 학지사, 2015), 3.

<sup>44</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72.

지금까지 우리의 성경을 대하는 방식은 앞서 말한 요절주의에 입각한 부분적인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물론 성경의 부분을 깊이 생각하는 경전읽기의 방법도 필요하다. 이것 또한 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부분적인 것과 전체적인 성경읽기 방법이 아우러져야 한다. 조병호는 성경을 통으로 볼 때,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 있게 인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와 본뜻을 헤아려 할 수 있다고 믿는다<sup>45</sup>

통신학은 부분적성경읽기를 강조하는 서양과 전체적성경읽기를 강조하는 동양의 성경읽기를 합쳐 새로운 해석방법의 길을 모색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다. 이는 말씀의 더욱 깊이 있는 접근의 통로를 개척할 것이며 모든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성경읽기를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통신학으로 이어지는 않는다. 조병호는 성경통독을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을 알고 있더라도 그 자체로 통신학이 아닌 것은 마치 사람 몸의 모든 성분이 한자리에 모여 있더라도 그것은 곧 사람은 아닌 것과 같다<sup>46</sup> 라고 말한다. 성경을 읽으면서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차원까지 넘어갈 때 통신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통은 대상의 인식을 위해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려 접근한다. 하나의 물체를 놓고 앞, 위, 옆에서 볼 때 다르게 볼 수 있다. 보는 사람마다 다르며, 보는 위치마다 다르며, 부분부분을 만질 때 다르다. 하나의 대상을 완전하게 보기 위해서는 그 관점을 종합하여 접근해야 한다.

꽃 한 송이를 두고도 물리적으로 인식하느냐, 관념적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른 대답이 나온다. 물리적인 인식으로 사고 범위를 한정하여 좁혔을 때에도 눈으로 인식하느냐, 코로 인식하느냐, 피부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르니 인식 결과를 갖게 된다. 또 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좁혀보아도 위에서 보느냐, 옆

---

<sup>45</sup> Ibid., 74.

<sup>46</sup> Ibid., 76.

에서 보느냐, 밑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보는 위치를 고정한다고 해도 멀리서 보느냐, 아주 가까이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꽃 한송이를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sup>47</sup>

조병호는 우리의 인식결과에 치중한 결과, 꽃 한 송이의 존재를 잇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한다. 통신학은 이 모든 인식의 결과를 소통하게 한다. 꽃의 향기와, 줄기, 번식 기능을 담당한 암술과 수술 등 모든 것을 지닌 꽃 한송이를 보게 한다. 통신학을 통해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께 절대적 순종을 보인 인물로만 바라보면 안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11:17-19)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한다.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왜 그래야만 하는지 질문하지 않았다. 절대적 순종이다. 그러나,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기술하고 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절대적 순종과는 거리가 멀다. 아브라함은 소돔에 있는 롯을 위해 의인 열명이 있으면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을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레너드 스윗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

<sup>47</sup> Ibid., 79.

아브라함이 거친 과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는 과정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라갔다<sup>48</sup>.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또 한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보다 관계다. 순종만이 중요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천사를 짓는 것으로 창조를 끝냈을 것이다.<sup>49</sup> 통신학은 이처럼 아브라함을 앞서 말한 것처럼 다양한 면에서 바로 보게 한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고, 왜 사용하시는가 바로 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 이것이 통신학이다.

### 통성경의 목회적 개념 이해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전인적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창조목적대로 온전히 세우는 것이 목회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21:15~17)

<sup>48</sup> 레너드 스윗, *관계의 영성*, 윤종석 역 (서울: IVP, 2007), 82.

<sup>49</sup> Ibid., 92.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고, 치라 말씀한다.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이 목회이며, 양을 가르치는 것이 목회다. 기독교신앙의 출구는 결국 신앙의 계승이다. 신앙계승이 없는 목회는 대안이 없다. 조병호는 아이들이 만5세가 되면 성경을 가르칠 것을 제안한다.<sup>50</sup> 조병호는 성경을 7트랙으로 나누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설명한다.

〈표2〉 바이블 통트랙스<sup>51</sup>

\*성경의 분위기와 배경

트랙	내용
트랙1	모세5경 (Pentateuch)
트랙2	왕정500년 (500 years of Monarchy)
트랙3	페르시아 7권 (Books during the Persian Empire)
트랙4	신구약 중간사 (A blank page full of History)
트랙5	4복음서 (The 4 Gospels)
트랙6	사도행전 30년 (30 years of Acts)
트랙7	공동서신 9권 (The 9 Epistles)

<sup>50</sup> 조병호,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21.

<sup>51</sup> Ibid., 23.

위의 순서는 성경을 7트랙으로 구분지어 통성경교육으로 편찬한 책이다. 성경전체를 7개의 분위기로 나누어서 가르치게 된다. 조병호는 책에서 성경은 역사이며, 삶이다. 라고 말한다.

성경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2000년의 역사(시간)와 1,500곳의 장소(공간)과 5,000명의 사람(인간) 이야기를 통으로 담고 있는 하나님의 통드라마입니다<sup>52</sup>

조병호는 부분적인 성경이야기가 아닌 신구약전체 이야기를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고 말한다.<sup>53</sup> 큰 그림을 보여주어야 한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고, 모함을 당해 옥에 갇히고, 수많은 부분부분이라는 난관에 처했다. 부분만 보면 희망이 없다. 그러나, 큰 그림은 볼 때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 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45:7-8)

요셉의 이야기는 통드라마다. 요셉의 일생은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우리의 삶과 같다. 부분부분을 보면 절망이다. 전체그림을 보면 희망이 있다. 삶의 목적을 제시할 수 있다. 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통성경 목회를 통해 성도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 룯기에서 룯의 모습을 보아도 그림이 잘못 그려지는 것 같다.

---

<sup>52</sup> Ibid., 24.

<sup>53</sup> Ibid.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 보아서를 만나게 한다. 성경은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다고 증언한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룻2:3-4)

이 부분을 부분적으로 볼 때 우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목회에서도 성도들을 향해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심을 선포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려서 우리 삶에서 큰 그림을 그려 가신다.

목회에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삶의 고난의 파편들을 대처할 수 있다. 요셉의 일생은 요셉의 개인 삶뿐 아니라 요셉의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요셉의 가족에서 히브리 민족으로 변성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 민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 사명을 주셨다. 한 개인의 삶은 나라로 이어지고, 한 나라의 일은 모든 민족으로 연결되어진다. 목회도 마찬가지다. 성도들 특히 자녀들의 일생을 큰 그림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부분을 이겨 갈 수 있도록 목회해야 한다. 하나님의 통드라마는 통성경을 통해 교육된다. 통성경 목회는 MZ세대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가져오게 한다. MZ세대를 목회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다. 디지털화되어 언제나 손에 잡힐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는 흩어져 있다. 멀리



있어도 온라인상에 그 이름이 언제나 올라와 있다. 파편적인 이들을 하나로 뭉쳐지게 할 수 있는 것은 통성경으로 교육하는 목회가 대안이 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다. 우리의 이야기다. 세대를 잇는 대안은 오로지 성경밖에 없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통성경 목회다.

#### IV. 통성경(tong Bible) 프로그램 방법

##### 통성경을 통한 통전적 성경공부

통전적이란 말은 모든 것을 통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알아야 할 점은 통전적이란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에 국한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이도저도 아닌 혼합주의로 흐르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통전적이란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통성경이다. 통성경은 성경의 중요한 정신과 관점을 놓치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으로 엮어 온전하고 분명한 신앙을 전수함에 있다. 그러므로 통전적 성경공부는 통(通)성경공부를 통해 이루어진다. 앞서 표1에서 말한 7트랙의 성경공부가 그 대안이 될 것이다. 이것은 성경읽기 와도 맥을 같이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대했던 방식은 좋아하는 권이나 장수를 먼저 읽었다. 순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의 감정이나 느낌을 충족할 수 있는 권별이나 장수를 찾아 공부했다. 그러나, 이런 성경공부나 성경읽기는 얕은 개울 물가에 앉아서 겨우 발만 담그고 침병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조병호는 말한다.<sup>54</sup> 이런 성경읽기 성경공부는 여러차례 반복한다고 해도 그 흐름이 쉽게 잡히지 않게 된다. 한국기독교가 다양한 성경공부를 실시해 왔지만 성도들의 성경이해나 성경을 정리하는 수준이 항상 제자리에 머무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조병호가 정리한 통전적 성경공부를 위한 구약성경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

<sup>54</sup>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5.

〈표3〉 구약 통성경의 실제<sup>55</sup>

마당	진행	성경구분
1마당: 하나님의 마음	1과 원역사	창세기1~11장
	2과 족장사	창세기12~36장
	3과 입애굽과 민족의 발아	창세기27~50장
2마당: 열방을 향한 꿈	4과 출애굽과 제국	출애굽기1~18장
	5과 세계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19~40장
	6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레위기
3마당: 만나세대	7과 만나세대의 성장	민수기
	8과 만나학교 졸업설교	신명기
4마당: 신앙계승	9과 약속의 땅 입성	여호수아
	10과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사사기
	11과 교육의 성공 사례	룻기
5마당: 천년모범	12과 미스바세대 탄생	사무엘상1~7장

<sup>55</sup> Ibid., 20.

	13과 왕정의 시작	사무엘상8~31장
	14과 하나님의 종 다윗	사무엘하, 열왕기상1~2장
6마당: 마음과 지혜	15과 솔로몬과 시가서	열왕기상3~11장 잠언, 아가, 전도서, 욥기, 시편
7마당: 사랑의 줄 사명의 줄	16과 남북 분열 왕조	열왕기상12~22장, 열왕기하1~14장, 아모스, 호세아, 요나
	17과 북이스라엘의 멸망	열왕기하15~20장, 이사야, 미가
8마당: 절망 앞에 선 희망	18과 남유다의 쇠락	열왕기하21~23장,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19과 잠깐의 징계	열왕기하24~25장,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오바댜, 역대상하
9마당: 징계, 희망의 디딤돌	20과 포로민 설득	에스겔
	21과 제국 변동의 밀그림	다니엘
10마당: 재건공동체	22과 성전 재건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23과 성벽 재건	느헤미야
	24과 고백과 침묵	말라기

이는 역사의 흐름을 중심으로 성경을 정리하였으며, 통전적읽기와 성경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맥을 잡을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을 당연히 역사순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어렵고 잘 이해되지 않는다. 정리된 통성경공부의 순서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구약과 마찬가지로 통전적 성경공부를 위한 신약성경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

〈표4〉 신약 통성경의 실제<sup>56</sup>

마당	진행	성경구분
12마당: 기쁨을 위한 탄생	27과 예수님의 탄생	마태복음
13마당: 한 영혼 사랑	28과 공생애 3년	마가복음
14마당: 용서를	29과 마지막 일주일	누가복음

<sup>56</sup> Ibid., 24.

향한 열정		
15마당: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30과 십자가 승리	요한복음
16마당: 열리는 제자 시대	31과 열리는 제자 시대	사도행전1~12장
17마당: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32과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사도행전13장~15:35
	33과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사도행전15:36~18:22 데살로니가전후서, 갈라디아서
	34과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사도행전18:23~19장, 고린도전후서
18마당: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35과 바울의 예루살렘여행	사도행전20~26장, 로마서
	36과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	사도행전27~28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37과 기독론과 기적의 편지	골로새서, 빌레몬서
	38과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19마당: 선한	39과 선한 싸움을 위한	히브리서, 야고보서,

싸움을 위한 편지	편지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20마당: 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	40과 최후 승리의 노래	요한일삼서 요한계시록

성경은 통으로 읽어야 한다. 통성경공부는 성경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알아야 한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볼 때에는 이런 다양한 관점을 얻기는 역부족이다. 성경 66권 전체를 위와 같이 나열하여 통전적으로 아우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관점은 주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부분만 본다면 아브라함은 비인격적인 사람으로만 생각될 수 있고 아브라함의 다른 면모를 볼 수 없다. 이는 통전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한다. 그러나 성경전체를 통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또한 아브라함의 다른 면모로 볼 수 있게 된다.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에 구하기 위해 용기 있게 달려간 모습은 아내를 보냈던 모습과 상반됨을 알 수 있다.

모리아산 사건만을 부분적으로 볼 때에는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밖에 접근할 수 없지만 성경통독을 통해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을 조망하게 될 때에는 믿음, 용기, 배려, 순종 등의 다양한 관점이 등장할 수 있다<sup>57</sup>

통성경을 통한 통전적성경공부는 이러한 관점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sup>57</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76.

제공한다. 구약과 신약을 통으로, 하나님과 인간과 삶을 통으로 바라보는 좋은 성경공부의 방법이 될 것이다.

### 통성경을 통한 공시·통시적 성경읽기

공시란 동일한 시간영역을 말하며, 통시란 연속되는 시간 흐름을 말한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예레미야와 스바냐와 하박국 선지자 등이 활동했다. 이들을 함께 조명해 보는 것이 공시이다. 예레미야 이전과 이후에 살았던 다윗과 느헤미야를 보는 것이 통시다. 성경읽기에 있어서 부분적성경읽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시·통시적 읽기방법이 통으로 가야한다. 그간 서양은 경전 중심의 성경읽기를 통하여 성경을 이성적으로 대해왔다. 그러나 동양의 전통 기반 위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에 다름 아니다.<sup>58</sup> 통성경성경읽기는 공시와 통시 두 영역을 통으로 아우른다.

이처럼 통시적인 관점에서 가나안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아브라함 때부터 오랜 시간을 통해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는 동시에, 공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최종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sup>59</sup>

조병호의 말처럼 성경읽기를 통성경을 통해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표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는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관점과 방법이다. 성경은 공시적인 방법과 통시적인 방법을 통해 읽어야 한다. 상호대립이

<sup>58</sup> Ibid., 73.

<sup>59</sup> Ibid., 84.



아니라, 통으로 접근해야 한다. MZ세대의 특징 중 하나는 집중력이 짧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기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원 포인트(One Point)교육이 필요하다. 원포인트 교육은 설교 뿐 아니라 공과와 삶의 전반적인 흐름을 하나의 메시지로 통합하는 전달교육이다.<sup>60</sup> 설교시간에 다윗에 대해 배우고, 공과시간에는 삼손에 대해 배운다면 교육의 효과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학생들이 한주간동안 교회에서 주어진 메시지를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를 삶에서 적용할 수도 없을 것이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 목사님이 설교한 성경본문과, 제목과,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한 주에 하나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것은 기성세대들도 힘든 일이다. 통성경은 한가지의 주제를 공시적으로, 통시적으로 묶어준다. 믿음은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관계의 확신속에서 산다는 것이다.<sup>61</sup> 레너드 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살아 있는 만남이라고 한다. 수천년의 역사가 흐른 지금 하나님과 살아있는 만남은 통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남가운데 서로 확인하며 믿음을 다지는 것은 공시적인 일이 될 것이다. 레너드 스윗은 그의 책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에서 삶의 정점에는 교리적인 논문이 아니라 열정적인 경험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한다.<sup>62</sup> 교회가 삶의 경험을 상실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수천년 역사가 믿어온 하나님을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였음이 문제다.

너무 거대해서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제국은 없는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

<sup>60</sup> 임만호, *아이들이 교회로 물러온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7), 85.

<sup>61</sup> 레너드 스윗, *관계의 영성*, 35.

<sup>62</sup> 레너드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19.

킬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개인은 없는 법이다<sup>63</sup>

한 사람을 통해 세계를 망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통성경은 예수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통해 세상을 바꾼 이야기를 전한다. 이는 한사람에게 전하여 한 이야기를 통해 한 시대에서 하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점이 된다. 그러므로, 통성경을 통한 공시적, 통시적 성경읽기는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하나님은 두 세계를 창조하셨다. 첫째는 보이는 세계-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 시공간, 즉 자연 세계이고, 둘째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세계,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과 악한 영들이 거하는 영적인 시공간이다. 영적인 세계는 물리적 세계만큼이나 실재하는 세계이며, 실재하는 시공간이다<sup>64</sup>

세상에는 한 순간에 천년이 걸려야 할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 반대로 하루 만에 일어날 일이 천년처럼 오래 걸려 진행되기도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 하루, 찰나의 시간 만에 수천년 죄사함의 일을 이 세상에 가져왔다. 이것은 통시적인 관점이다. 우리가 성경은 통성경을 통해 읽으면 수천년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내 삶의 다른 모든 시간을 합친 것보다 임팩트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로 교회는 변화에 더욱 민감해야 한다. 사역자들도 사역스타일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sup>65</sup>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변화와 사역을 연결시키는 일은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에 사역자들이 집중할 일이다. 코로나19가 지나도 놓

<sup>63</sup> Ibid., 25.

<sup>64</sup> 고성준, *카이로스1 하나님의 시공간* (서울: 규장, 2020), 137.

<sup>65</sup> 최현식, *코로나 이후 3년 한국교회 대담한 도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20), 54.

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놓아야만 될 일도 있다. 새로운 시대변화는 우리를 공시적, 통시적인 시각으로 시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끈다. 이에 통성경 교회교육은 새로운 시대변화에 놓치지 말아야 될 일이며, 놓아서도 안될 핵심 사역이 될 것이다.

### 통성경을 통한 문화이해와 통합

21세기 MZ세대 문화 중 하나는 온라인 커뮤니티다.<sup>66</sup> MZ세대는 온라인을 하나의 사회로 여긴다. 그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삶의 영역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이제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오프라인에 살아가지만 온라인에 동시에 살아간다. 우리 사회에 공존하는 문화다. 이는 온라인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제세상인 오프라인에서 그대로 전해진다. 오프라인 범죄 못지않게 온라인 범죄가 심각하다. 이것은 이미 온라인이 삶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함께 가는 하나임을 말해주는 일이다.

하나님은 자연 세계(natural world)를 창조하셨고, 인간은 가상세계(cyber world)를 창조하였다. 하나님은 태초에 무(無), 즉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부터 시간과 공간을 함께 만드셨다…… 그런데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가 아니라 사실상 인간이 최초로 창조한 가상세계를 접하게 되었다<sup>67</sup>

하나님은 자연세계를 만드셨고 인간은 가상세계를 만들었다. 하지만 결국 이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 짓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 짓는 것과 같다. 이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영적인

<sup>66</sup> 김효정, *MZ세대 사용설명서*, 154.

<sup>67</sup> 이윤석, *4차 산업 혁명과 그리스도인의 삶*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8), 50.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성경은 지금부터 2천년 전 시대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현세대를 맞게끔 각색하여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성경의 이야기는 6천년의 이야기가 다양한 문화 속에서 그려져 있다. 시대와 문화 지역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차원이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적온라인 세계로 들어간다. 앞서 말한 MZ세대의 온라인 커뮤니티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은 오프라인으로 연결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적온라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의 오프라인 삶에 그대로 적용되며 일어난다. 통합적인 사고는 이제 우리 세대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 한국교회 트렌드2023년에는 온라인 교육이란 말을 쓴다.<sup>68</sup>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교육을 뜻한다.<sup>69</sup>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교회는 기존 오프라인교육의 어려움과 시대흐름에 대처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온라인 교육이다. 코로나19상황으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다. 팬데믹으로 인해 손 놓고 있을 상황이 되지 않아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교육이 시도되었다. 이후 현장예배가 다시 재개된 이후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가 계속적으로 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는 동안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교회학교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된 온라인 교육이 교회교육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다. 즉, 온라인예배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sup>70</sup> 기성세대들은 아직 온라인 예배와 교육에

<sup>68</sup> 지용근 외, *한국교회 트렌드2023*,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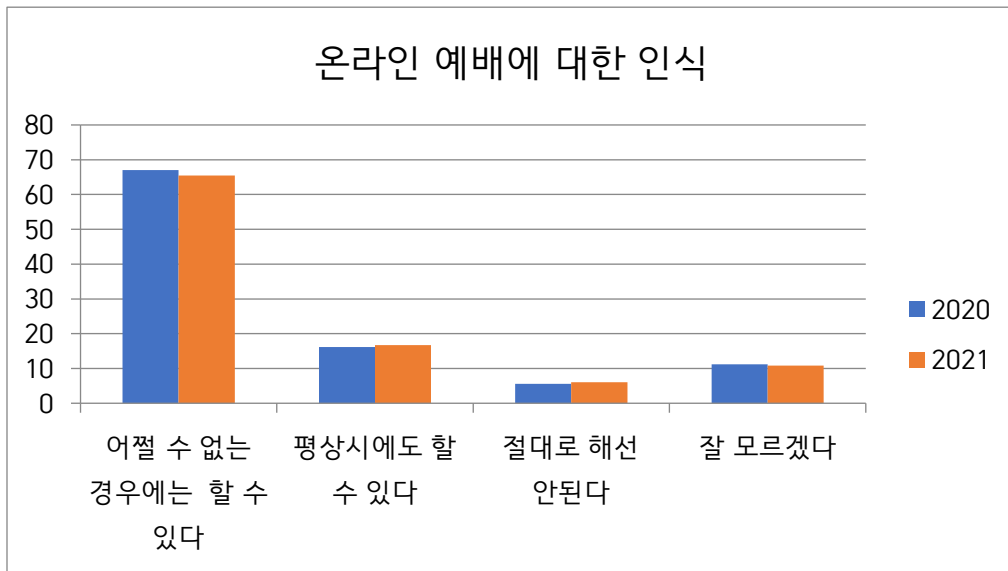
<sup>69</sup> Ibid., 온라인교육(All-Line Education) : 온라인 교육이란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 그리고 가정에서의 전반적인 신앙교육을 아우르는 말이다. 코로나19이후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과 함께 부모로부터 신앙교육 필요성이 요구되는 등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sup>70</sup> Ibid., 203.

대한 반감이 적지 않으나, MZ세대들의 온라인 신앙교육의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다음 그림은 전국 중고생대상으로 한 온라인예배 인식 설문조사 결과이다.

〈그림8〉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인식<sup>71</sup>



코로나 이후 MZ세대들은 과반수가 넘게 온라인 예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코로나가 잠잠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접어든 현시점에서도 온라인예배는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각 교회에서도 매주 영상예배와 교육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추세다. 이것은 코로나 기간을 거치는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된 온라인 교육이 트렌드로 자리잡았음을 말한다. 이것은 엔데믹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MZ세대는 이처럼 연결성이 강조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sup>71</sup> Ibid., 202.

트렌드는 교회교육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떠올랐다. 통성경을 통한 문화이해는 MZ세대 이해를 돕고 기독교 문화와 MZ문화를 연결 짓는 통로가 될 것이다. 이제 세상은 다양한 문화로 나뉘고 하나의 커뮤니티로 치닫고 있다. 이것은 통성경이 가지는 핵심주제와 그 고리를 같이한다. 다양한 성경의 부분들이 하나의 통으로 이해되는 것은 이 시대 MZ세대를 이해하고 교회문화에 접목시키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 통성경을 통한 공공성 회복

코로나19 이후로 한국교회는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꼭 이런 시기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세상의 외침에 적절한 대응과 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점염병이 퍼지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한 표현일 수 있다. 하지만, 세상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 실제로 2022년4월 국민일보 조사에서 일반 국민들의 79.3%가 개신교는 국민의 안전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들 종교활동만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sup>72</sup> 뿐만 아니라 교인들마저 교회에 대해 큰 실망을 가지게 되었고, 교회를 이탈하는 성도들이 속출했다.

전세계 교회의 성장과 쇠퇴의 핵심적 원인에는 예외 없이 교회가 가지는 공동체적 본질이라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공동체성이 강화되는 시기에는 교회가 성장되었고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거의 대부분 교회는 쇠퇴했다.<sup>73</sup>

<sup>72</sup> 지용근 외, *한국교회 트렌드 2023*, 223.

<sup>73</sup> 김상권, *청년실종 공동체성으로 회복하라* (서울: 크리스천리더, 2012), 14.

이처럼 공동체가 역할은 각 세대마다 중요하다. 어느 세대마다 공동체성이 강화되지 못하면 교회는 쇠퇴했음을 볼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영성생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성도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 되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집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 양식은 신학적으로 인간에게 신성을 부여했다거나 인간이 하나님의 공동체성과 직접적이고 일대일로 대응되는 속성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보다는 인간 스스로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양식으로 존재하며 활동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적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다.<sup>74</sup>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계시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신다. 이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하여 서로 관계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교회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속성을 교회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보여주는 사명을 받았다. 교회의 참모습은 기독교의 발흥<sup>75</sup>에서 잘 보여지고 있다. 초기 기독교 당시에 창궐한 전염병은 속수무책으로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 이교도들은 전염병으로부터 도망갔고, 환자는 버려졌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전염병 환자들을 끝까지 돌보았다. 이에 전염병에 대한 면역이 생겨났으며, 많은 환자들을 살릴 수 있었다. 그것은 당시 기독교인들이

<sup>74</sup> Ibid., 45.

<sup>75</sup> 로드니 스타크, *기독교의 발흥* 손현선 역 (서울: 좋은 씨앗, 2016)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였기 때문이다.

죄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세상에 드러낸다. 통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보조장치이다.

통성경을 통해 성경을 읽고 바라보게 되면 한국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IV. MZ세대 신앙교육을 위한 현장 별 통성경 프로그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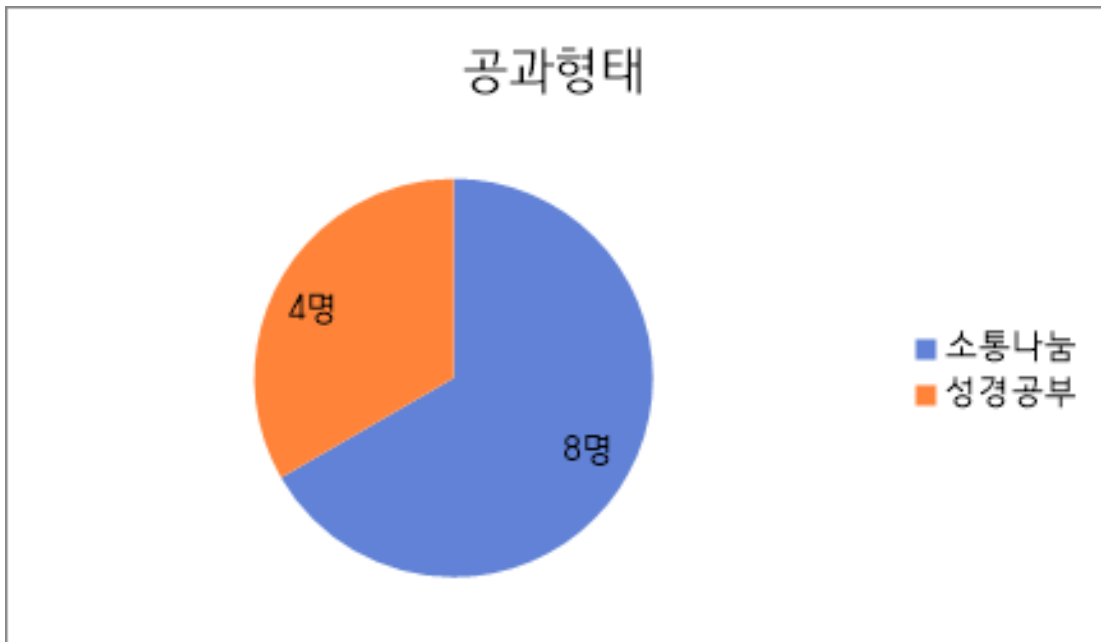
##### 교회학교 교사에게 통성경 프로그램 적용

고등부 교사들을 대상으로 먼저 통성경 프로그램<sup>76</sup>을 실시하였다. 2021년 3월부터 실시하였으며 조병호의 통성경 길라잡이를 교재로 하여 토요일마다 한시간 실시하였다. 교사들과 아이들을 병행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교사들을 먼저 교육하고, 그 교육의 효과를 공과공부에 적용하면 더 나은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오랫동안 다양한 성경공부를 접해왔다. 그러나, 대부분 파편적인 성경지식의 나열이었다. 통성경길라잡이를 통해 흩어진 파편과 같은 성경의 지식을 잡아주었다. 대부분 교회학교 교사들은 교회교육에 대해 많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었고, 성경을 아는 수준도 상당 수준이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 성경의 요지는 잡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변화는 시급한 상태였고, 이를 위한 교사들의 공과공부 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은 더 시급한 상태였다. 필자가 고등부사역을 단기간 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짜임새 있는 커리큘럼이 필요하였다. 이에 아이들의 교육을 뒤로 하고 교사교육을 먼저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교사들에게 통성경을 가르치기 전 조사결과, 교사들에게 간과해서는 안될 깊은 수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교사들이 공과를 진행함에 있어서 성경공부 보다는 학생들과 소통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

<sup>76</sup> 통성경 프로그램 : 조병호가 만든 통성경공부와 통성경통독(성경읽기)을 접목하고 병행한 프로그램이다.

다. 이는 본 교회뿐만 아니라 필자가 교사로 섬기던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던 교육의 실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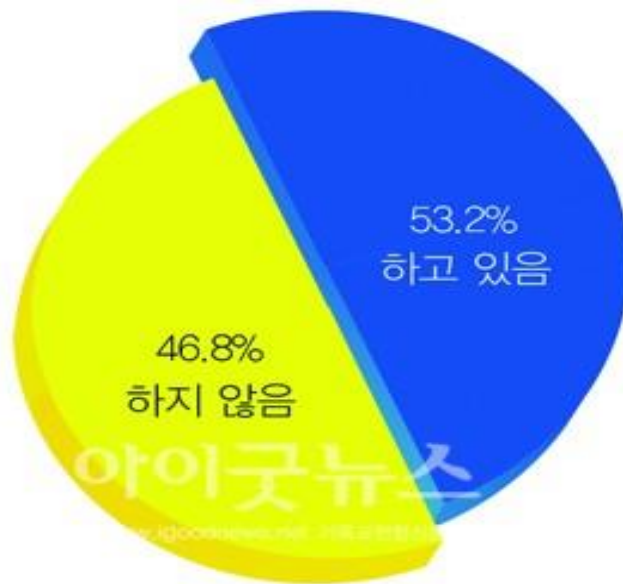
〈그림9〉 고등부 교사 공과진행 형태



교사 중 과반수가 성경공부 위주보다 학생들과 친교를 중심으로 공과시간을 할애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학생들이 공과를 지루하게 여기며 듣지 않기 때문이고, 교사들 편에서는 짧은 시간에 준비된 공과를 나누기도 힘들다고 한다. 본질적인 것은 교사가 성경을 원포인트, 즉 통으로 보고 통으로 가르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설교자인 필자에게도 해당된다. 성경을 알지만 성경을 풀어낼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이 습득되어 있지 않은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고문과도 같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성경은 성경이 말한다. 성경을 다른 방법으로 가르칠 수 없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통으로 된 하나의 이야기를 모르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시키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공과는 친교의 시간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림10〉 공과공부 진행 여부<sup>77</sup>



기독교연합신문이 조사한 청소년들의 공과공부 참여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는 충격적이다. 46.6% 거의 절반의 숫자가 공과공부에 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청소년들의 70%가 주일학교 공과공부가 신앙생활에 도움을 준다고 답변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공과공부를 인정하고 있지만, 공과공부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수많은 교회가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으로서 공과공부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과공부, 즉 성경공부가 살아

<sup>77</sup> <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3401> [2023년 1월 26일 최종 접속]

야 청소년들이 살 수 있고, 청소년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 수 있다.

대개 공과공부 시간을 친교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교제로 시간을 보내 버리는 교회가 많다. 일주일에 한시간 채 되지 않는 성경공부의 시간을 흘려 버리는 것이다.

〈그림11〉 공과공부 미 참석 이유<sup>7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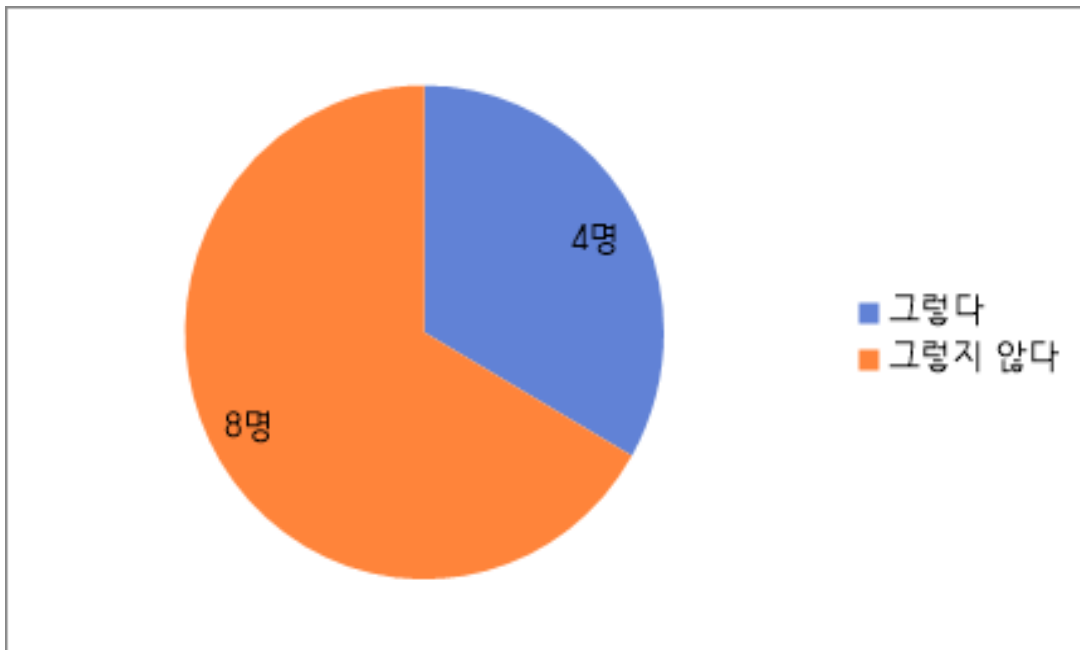


학생들이 공과공부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21.4%를 차지한 공과공부가 재미없다는 부분은 눈 여겨 봐야 한다. 교회학교 교사들을 마냥 나무랄 수 없는 형편이다. 그것은 과거 우리의 교육현실이 물 흐르듯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이다. 교사들에 대한 인지도 있는 방법적인 성경공부 제시는 결국 교역자의 역할이다. 하지만 교역자가 이 일에 대해서 교사들에게 일임하는 일이 많았고, 시대적인 흐름

<sup>78</sup> <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3401> [2023년 1월 26일 최종 접속]

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대응으로 일관했던 적이 많았다. 이에 교사들에게 스트레스는 과중 되어서 연말이 되면 많은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역을 쉬고 싶다고 말한다. 본 교회 고등부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였다.

〈그림12〉 교회학교 교사 연임을 계속하고 싶은가?



교회학교 고등부교사를 대상으로 “연말이 되면 내년에도 사역을 계속하고 싶은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 중 절반 이상이 사역을 내려놓고 싶다고 응했다. 물론 여기에는 개인사정도 포함된다. 하지만, 설문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들과 소통문제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학생들과 성경공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들이 세대차이 때문이라는 이유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대차이가 아니라 결국 성경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채 파편적인 것들을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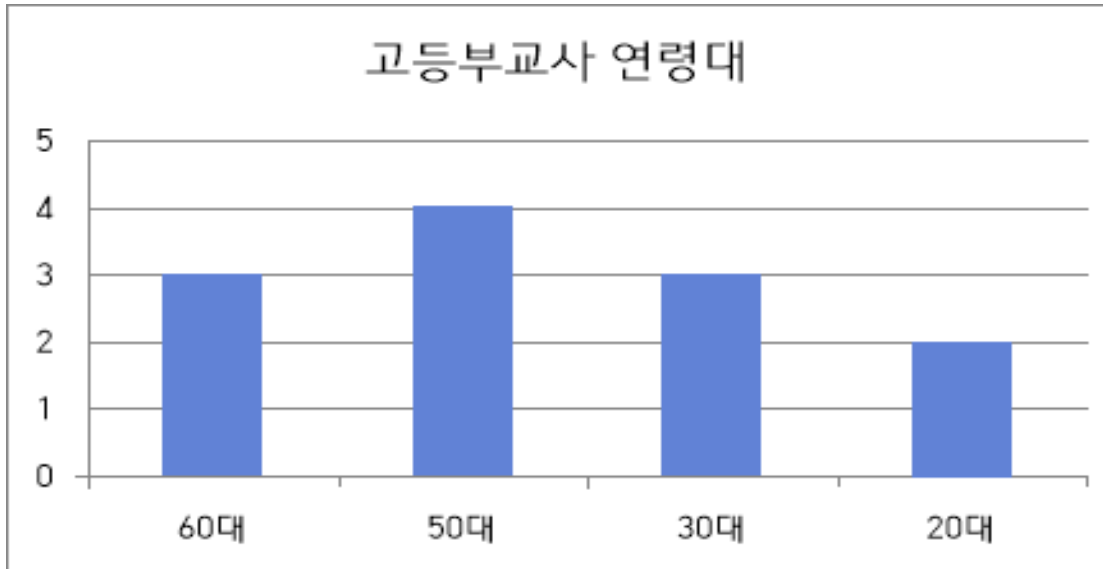
들에게 나열하는 것은 MZ세대들의 마음을 끌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사역자다. 현재 한국교회는 교회학교 교사에게 주로 하는 말이 가르치려 하지 말고 함께하라고 한다. 함께 놀고 함께 덩굴라고 한다.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면 안된다. 교회학교는 말그대로 성경학교다.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다. 교사가 가르치지 못하고 그저 친구로만 남게 되면 다음세대의 신앙교육은 방향을 잃고 말 것이다.

우리는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두면 알아서 성장할 것이라는 낙관론적 시각에서 다음세대를 보았다. 하지만, 이제 교육문제는 심각하게 현실로 다가왔다. 그러므로 교사들에게는 이전보다 더 큰 막중한 책임이 올려졌다. 학생들을 위한 성경공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것을 위한 학습 툴은 이전 것 만을 고수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제 놀이가 아니라, 그들과 마음을 열어야 한다. MZ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의 바램을 귀기울여 들어야 한다. MZ세대의 키워드인 소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와 학생을 이어줄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은 교사들도 이해할 수 있고,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교재다. 교사가 자신이 이해한 것을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교재가 필요하다.

본교회는 이전에 공과공부 교재로 총회에서 발행한 총회공과를 사용하고 있었다. 총회공과는 전문적인 집필진이 여럿이 모여 편찬한 책이다. 내용이 좋고, 짜임새도 좋아서 다양한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변화를 위해서 총회공과 대신 통성경길라잡이를 통한 교사교육과 공과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부장과 교사 모두가 동의하였고, 통성경프로그램을 현장에 접목시키기로 하였다. 먼저 통성경을 공부하기 위해 교사들 나이대를 조사하였다. 이는 본교회에서 음 실시하는 것인만큼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조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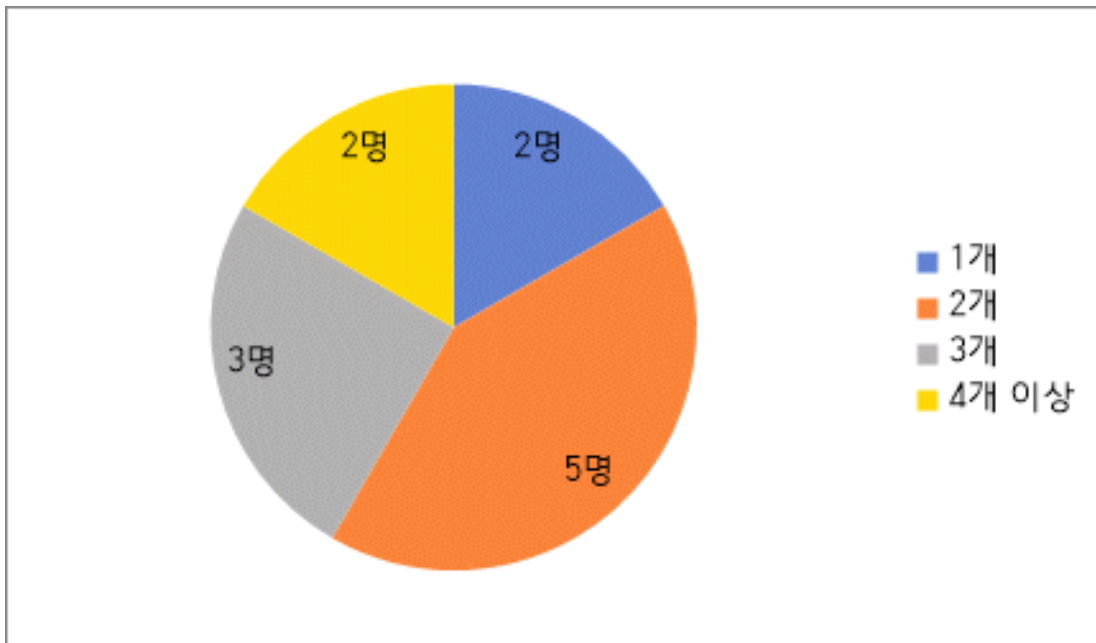
〈그림13〉 고등부 교사 연령대 분포도



본 교회 고등부 교사들은 다양한 분포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60대교사들은 근속 20년을 봉사한 교사들로서 부장을 포함하여 부감이 있다. 청년교사들이 울동과 방송영상담당으로 섬기고 있으며, 그 외 교사들이 일선에서 반을 맡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다. 필자가 교사로 섬기던 시절에는 보통 청년들이 교사로 사역을 했다. 다음세대를 교육하기 위해 바로 위의 다음세대가 성경을 가르쳤다. 세대간 이해도와 문화차이에 대한 격차를 최소화하며 소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세대가 훌쩍 뛰어넘어 두 세대 간의 차이가 나게 된다. MZ세대를 X세대가 맡아서 교육하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 교회의 교육현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의 교사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고등부 교사들 대부분 교회에

서 이중으로 섬기는 일들이 많아서 주일에 성경공부를 진행할 시간이 마땅치 않았다. 이는 성경공부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차질을 주는 일이었다.

〈그림14〉 고등부 교사 외 사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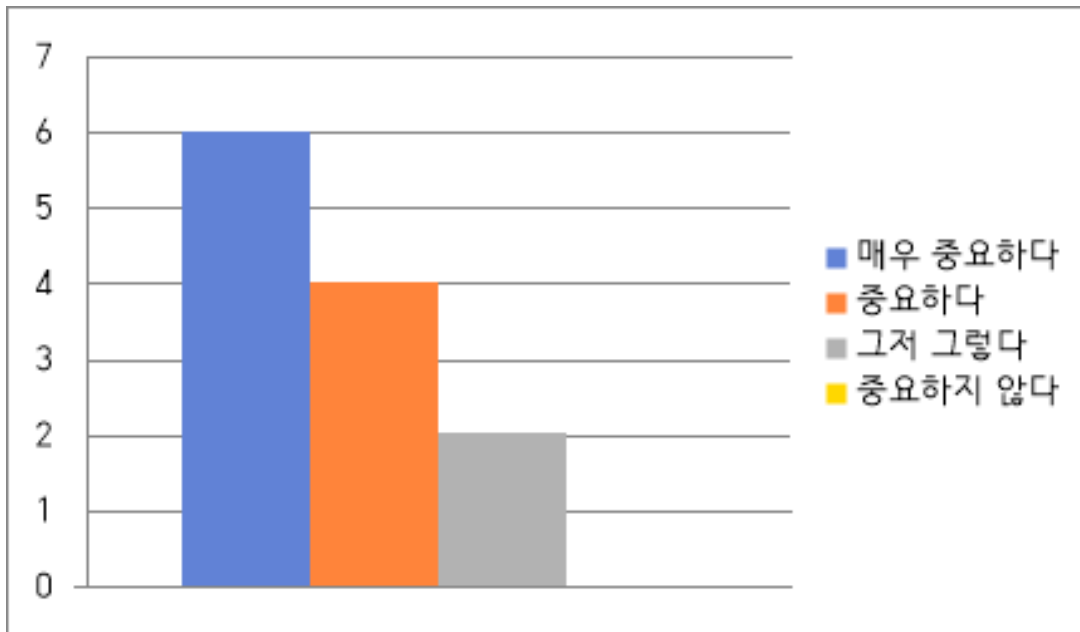


교사들의 교회학교 사역 외 활동은 5명이 2개이상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3명이 무려 3개 이상 다른 부서에서 섬기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 대부분이 다양한 사역의 현장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이는 주일학교 사역에 집중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다. 필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역의 흐름도 통성경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세대를 지도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교육부와 관련된 사역에만 집중하여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주일학교 사역자들은 장년부와 청년부 교육부, 찬양대를 오가며 사역한다. 이 때문에 사역자들은 한 부서에서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기 힘들다. 이 같은 이유들로 인해 성경공부시간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이는 다른 교육부 모임을 위한 시간배정에도 차질을 줄 것이 명백하다.

〈그림15〉 교사 성경공부에 대한 필요성 조사?



통성경길라잡이 공부를 위한 사전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을 위한 성경공부가 중요함을 거의 대부분이 공감하였다. 지금까지 교육부 교사를 위한 마땅한 성경공부 시간과 프로그램과 교제가 없을 뿐이었다. 이에 통성경프로그램(통성경길라잡이)을 통해 토요일 오후 시간을 활용하여 교사성경공부를 실시하였다. 처음 주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통성경공부의 목적과 전체적인 개관을 설명하였다. 통성경을 배우는 동시에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교사로 서야하기 때문에 배움과 가르침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특별히 통성경을 배우는 자세에 대해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 교사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였고 새롭게 임하는 다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표5〉 통(通)성경 강의자세<sup>79</sup>

순번	목 표	내 용
1	하나님께 지혜와 용기를 구하라	통성경 강사는 모든 강의 전에 반드시 그 과가 속한 통성경 길라잡이, 통성경 지도자 지침서, 인강을 먼저 공부해 강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와 용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 후,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강의에 임해야 한다.
2.	성경내용을 틀리지 않게 전달하라	통성경 강의는 성경 내용을 이야기로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매 강의는 정해진 과의 내용을 강의해야 하며, 복습을 할 경우에는 5분 내외로 짧게 요약 정리한다. 또한 성경 내용을 가지고 개인의 경험이나 간증을 덧붙여서는 안되며, 설교가 되어서도 안된다.
3	사적방식 전달을 지양하라	강의는 공적인 스피치이므로 사적인 방식의 전달은 지양해야 한다
4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하라	질문을 받을 경우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최대한 간단하게 답을 하고, 답을 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때에 답을 하겠다고 약속한 후, 다음 강의 전까지 충분히 공부해 성실한 답을 준비한다.
5	정해진 강의	정해진 강의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반드시 정해진

<sup>79</sup>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2), 17.

	시간 준수	시간 안에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모든 강의 내용을 시간에 맞게 정리한 후 강의에 임해야 한다.
6	눈높이 강의	강의를 듣는 대상의 형편과 눈높이에 맞춰 배려하면서 강의해야 한다. 통성경 강사는 강사의 만족을 위한 강의를 아님을 늘 생각하며, 전도인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7	성경기록을 이야기로 전달하라	통성경 강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기록을 이야기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자신의 의를 드러냄으로 상을 미리 받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강의에 임해야 한다.

교사들에게 지도해야 할 통성경강의는 학생들의 수준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위의 강의자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또한 이 내용들이 교사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강의자세를 주의해서 강의하였다. 통성경강의 주의사항에서 이미 통성경에 대해 전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과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윤곽이 드러났으며, 오리엔테이션 전반적인 시간에 이미 교사들을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기 시작했다.

통성경 강의는 토요일 1시간씩 53주(오리엔테이션 1주 포함)에 걸쳐 진행하였다. 2021년 8월에 시작하여 2022년 9월까지 계속되었다. 토요일마다 실시한 통성경공부는 그 다음 주 설교와 맞추어서 공과공부에 활용되었으며, 그 주 통성경과 관련된 설교, 그리고 공과를 통합하는 작업을 하였다.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공과를 가르치기 위해 자연히 성경공부에 참여하는 참여도가 높아졌다. 교사들이 빠지는 일이

생기면 녹화된 동영상과 개인과제를 통해 개별수업을 진행하여 진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통성경 길라잡이 교재는 총 7트랙으로 구성되어 52주로 구성된다. 그 요약은 다음과 같다.

〈그림16〉 통(通)성경 길라잡이<sup>80</sup>



통(通)트랙<sup>81</sup>

‘모세5경’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모세 시대에 형성되는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 셋업 분위기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들을 흉년에 곡식이 풍성한 애굽(이집트)로 이주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sup>80</sup> 통독원제공.

<sup>81</sup>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7.

곳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 이라 부를 만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 19:5~6)

하나님께서서는 ‘민족’은 있으나 ‘나라’를 갖지 못한 히브리인들에게 제국주의를 꿈꾸던 애굽의 오만과 억압을 민족적으로 체험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훈련시킨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최종 목표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관점이다.

#### 통(通)트랙<sup>82</sup>

‘왕정500년’은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자들이 대립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에 의한 통치가 아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다. 사무엘상 8장에서 백성들의 왕정 요구로 시작된 ‘왕정500년’은 모세5경 분위기가 확연하게 바뀐다.

---

<sup>82</sup> Ibid., 163.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삼상8:6~7)

하나님께서서는 왕정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렇게 왕정 500년이 시작된다. 왕정 500년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왕과 선지자들은 ‘제사장 나라’를 두고 대립과 협력의 500년 시기를 보냈다.

### 통(通)트랙<sup>83</sup>

‘페르시아 7권’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은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 속에서 제사장 나라를 실현’해 가는 분위기다. 페르시아 7권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한 남유다의 처참한 형편과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속에서 쓰인 내용이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집들이 불에 타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성은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 무자비한 약탈을 당했다. 그 광경을 보고 예레미야가 간이 땅에 쏟아지는 고통을 느끼며 밤새 울고 또 울었다. 그런데 새벽에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옵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

---

<sup>83</sup> Ibid., 309.

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애 3:19~23)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들이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으므로 그들을 통해 다시 제사장 나라를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의 꿈은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 때 에스라, 느헤미야 들을 통해 현실이 된다.

#### 통(通)트랙4<sup>84</sup>

‘중간사400년’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 구약성경의 세계화와 유대 분파가 형성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중간사 시기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400년의 시간이다.

중간사 400년 기간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이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셀루커스 왕조 때에는 유대 핍박으로 말미암아 유대에 여러 분파(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가 생겨났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예수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사용하신 것이다.

#### 통(通)트랙5<sup>85</sup>

---

<sup>84</sup> Ibid., 386.

<sup>85</sup> Ibid., 425.

4복음서는 세례요한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셋업 분위기이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등장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천과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막1:14-15)

모든 제국은 하나같이 ‘제국이여 영원하라’ 를 외쳤다. 그러나 모든 제국은 다 멸망하였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며 우리의 소망은 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 통(通)트랙<sup>86</sup>

사도행전 30년은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분위기이다. 신약시대, 로마제국의 속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세력, 곧 산헤드린 공회 세력은 로마 황제나 로마 총독, 그리고 심지어 분봉 왕 헤롯까지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런 그들이 나서서 로마를 이용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하였다.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

<sup>86</sup> Ibid., 491.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행4:6~10)

사도행전 4장을 기점으로 사도들이 대제사장 세력들과 각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

#### 통(通)트랙<sup>87</sup>

공동서신 9권(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요한일이삼서,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는 분위기다. 사도행전30년의 기간 동안 기독교는 주로 유대교에 의한 기독교 전도 방해, 즉 유대교와 기독교의 대립이 주된 어려움이였다. 그러나 AD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는 유대교를 넘어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한다. 로마가 대화재 사건의 방화범으로 기독교들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시점으로부터 또 다른 분위기가 시작된다.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작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딤후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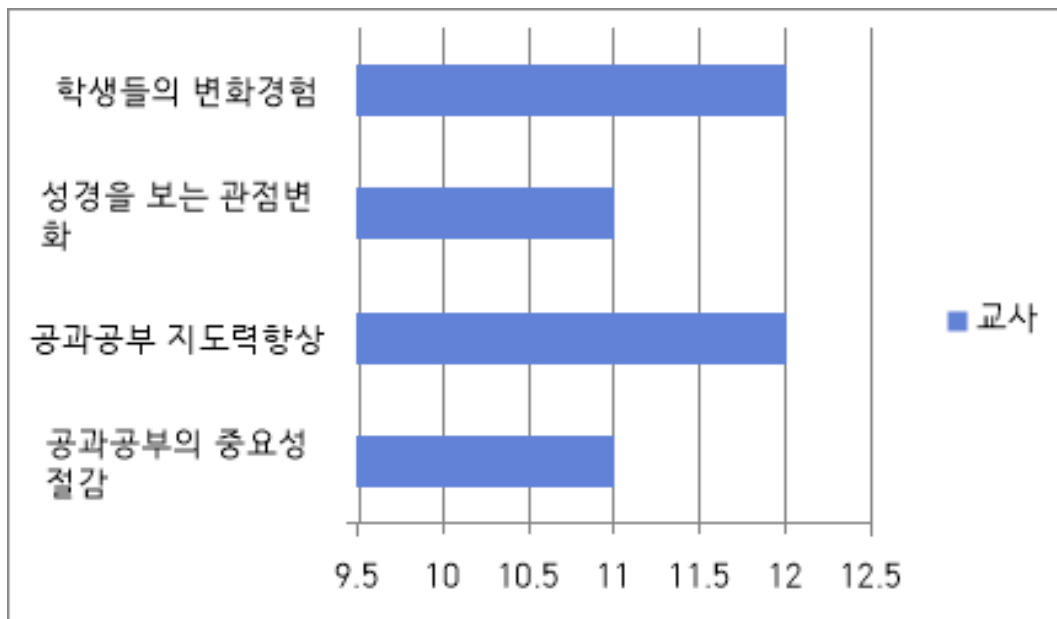
---

<sup>87</sup> Ibid., 581.

바울을 비롯해 복음 1세대 지도자들은 오히려 더욱 힘내서 로마 제국의 박해와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 사상들과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어내게 하는 원동력을 만든다. 결국 AD313년 기독교는 250여 년간의 로마 제국의 박해를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

위의 7트랙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교사 통성경길라잡이 교육은 다음해 3월까지 실시하였다. 교사들이 통성경을 통해 공과를 진행하며 느낀 점은 다음과 같다.

〈그림17〉 통성경길라잡이를 통한 교사들의 변화



대부분의 교사들이 성경공부를 진행해 감에 따라서 공과공부를 가르치는

자신의 변화와 공과공부를 하는 아이들의 변화를 체감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음을 모든 교사가 느꼈다고 하며, 이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신앙교육의 대안이 없음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MZ세대의 아이들을 위한 신앙교육은 마음나누기나 놀이 소통이 우선이 아니라 결국 체계화된 성경공부임을 서로가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된 것이다. 통성경 프로그램은 교사들의 신앙을 재편하고 새롭게 끌어올렸다. 교사로서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명감을 고취시켰다. MZ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사교육은 통성경을 통해서 효과를 보았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원론적 사고를 하는 것에 있다. 교사들 또한 지금까지 이원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세상과 교회를 나누어서 생각하고 가르쳤다. 과학, 역사, 사회 등은 세상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성경만 배우는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많았다. 하지만 통성경을 통해서 세계관을 정립하게 되었고, 교사들의 인식도 변화되었다. 통성경은 교사들 일원화된 기독교세계관과 역사관을 가지게 하였고, 교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다시 통성경을 통해 성경만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 **교회학교 학생에게 통성경 프로그램 적용**

필자는 2019년 1월에 본교회에 부임하여 코로나가 한창인 2021년 1월에 고등부를 맡아 1년동안 교육했다. 당시 통성경을 공부하고 교육받은 필자는 통성경을 프로그램화해서 성경공부와 읽기로 나누어 고등부 교사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들이 공과시간에 통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본격적으로 아이들에게 통성경학교를 개설하여 실시하였다. 2022년 3월 통성경학교

1기가 개설되었다. 고등부 예배 후 11시부터 12시까지 한시간 실시하였고, 고등부 37명이 수료하게 되었다. 이는 출석인원 대비 60%이상의 참석율을 보였다. 9주의 과정으로, 교제는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로 진행했다. 첫 주는 성경 전체를 그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주부터 여덟째 주까지는 통트랙 7개의 과정을 진행했다. 마지막 아홉 주 째는 종합하여 큰 그림을 그려 주었으며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9주과정과 동시에 청년부 예배의 주제도 통성경 프로그램의 주제와 같이 선포되었다. 또한 삶의 현장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삶의 예배를 강조하였다.

처음 실시되는 통트랙스 성경공부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아이들의 참여도가 신청 수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다. 이는 고등과정의 학교수업 외 학원 등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서 지장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이 주일에는 고3외에 스터디 카페를 다녔으며, 참석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여 아이들과 함께 실시하였다.

〈표6〉 장성교회 고등부 바이블 통트랙스 성경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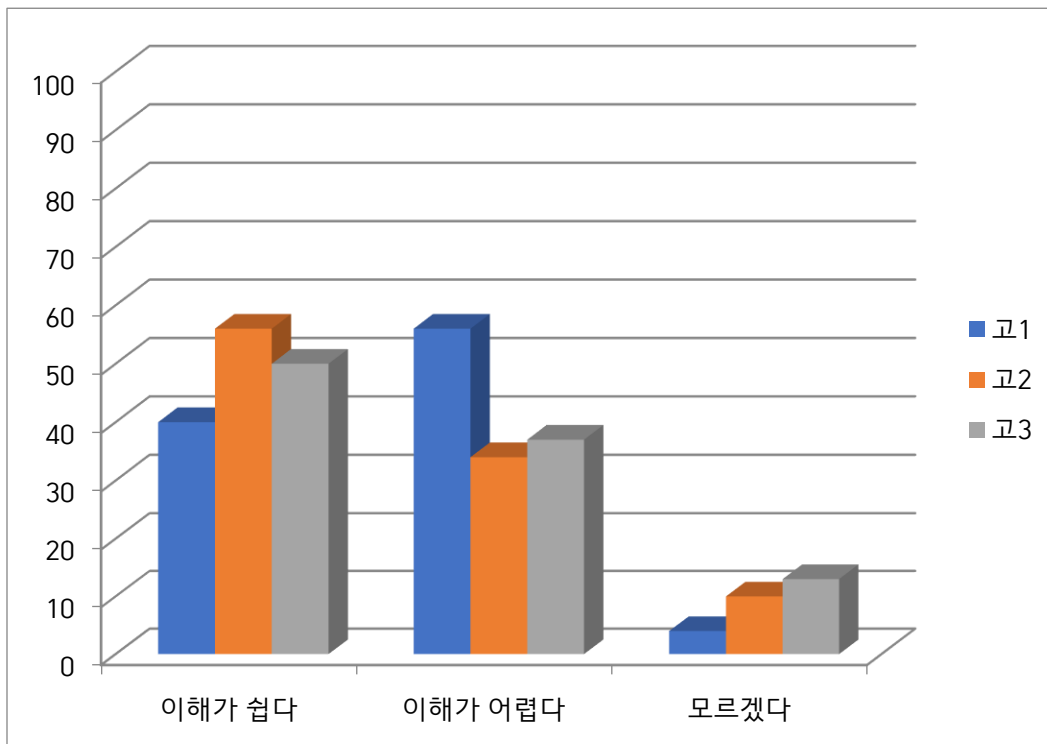
1	목적	영적 성장과 변화	비고
2	목표	1. 하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만난다 2.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된다.	
3	교재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조병호	
4	준비	1. 교재를 구입하고 교재를 가지고 모임에 참석한다. 2. 모임 하기 전, 매주 주어진 분량을 집에서 읽고	

		온다.	
5	개강	3월6일(주일)오전11시(9주과정)	
6	범위	1주. 성경분위기와 배경 2주. 트랙1:모세5경 3주. 트랙2:왕정500년 4주. 트랙3:페르시아7권 5주. 트랙4:신구약 중간사 6주. 트랙5:4복음서 7주. 트랙6:사도행전30년 8주. 트랙7:공동서신9권 9주. 종합의 시간	
7	진행	찬양/성경공부 및 나눔/기도	

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바이블 통트랙스는 위의 표4와 같이 일정이 진행되었다. 목표는 성경을 통으로 배워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아는 것이며,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지 않고, 통으로 보면 눈을 기르는 것이다.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여, 짧은 아이스브레이크 후 배울 본문의 큰 요지가 되는 질문을 시작으로 진행하였다. 아이들과 대화형식을 가미하여 지루하지 않게 유도했으며, 갈수록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성경공부에 임하게 되었다. MZ세대의 특징 중 하나인 길고 지루한 것을 못 견디는 세대임을 감안해서 한시간을 넘기지 않았으며, 대신

학생들에게 예습을 해오고 질문을 한가지 적어서 오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성경이해도는 현저히 낮았다. 많은 학생들이 성경자체를 모르고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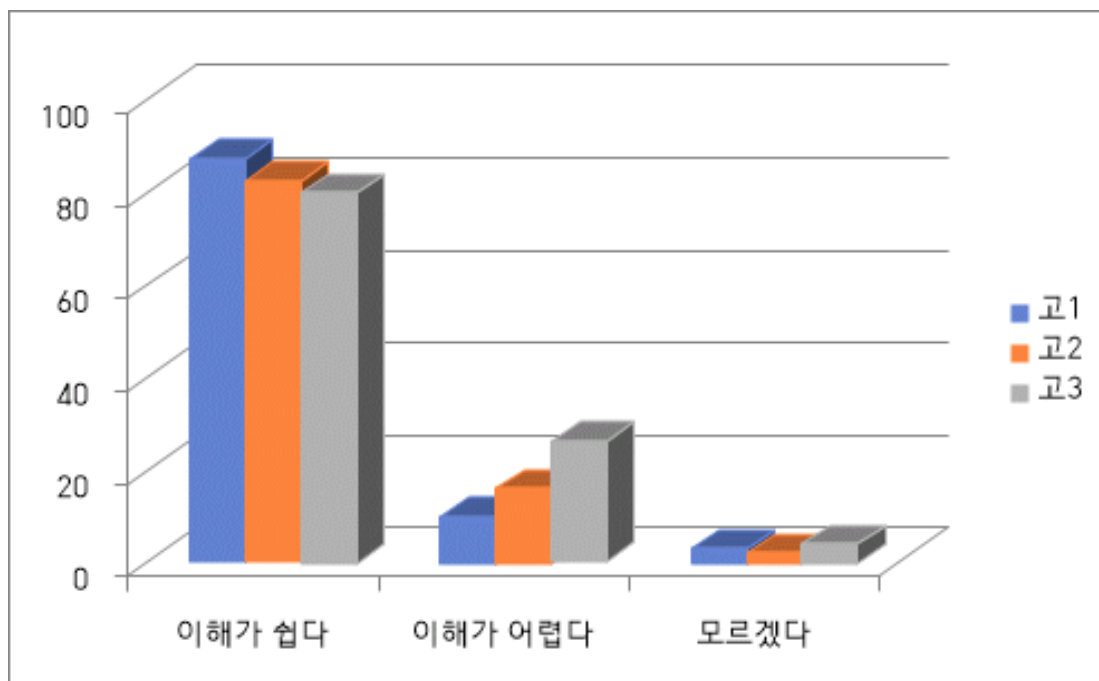
〈그림18〉 고등부학생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도



그림에서 보면 고등부 아이들의 절반이 성경을 이해하고 절반은 이해가 어렵다고 답했다. 특히 중학교에서 올라온 고1학생들의 성경이해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주일학교에서 공부해온 성경공부가 전체적인 맥락이 아닌 부분적인 공부를 통해 아이들을 가르쳐온 결과이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파편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어떤 분인지 잊어버리게 한다. 삶의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며, 그때마다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을 그리게 된다. 성경공부가 얕은 물가에서 맴도는 한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진수는 발견하지 못한다. 이에 통성경프로그램은 아이들을 깊은 강가로 이끌 수단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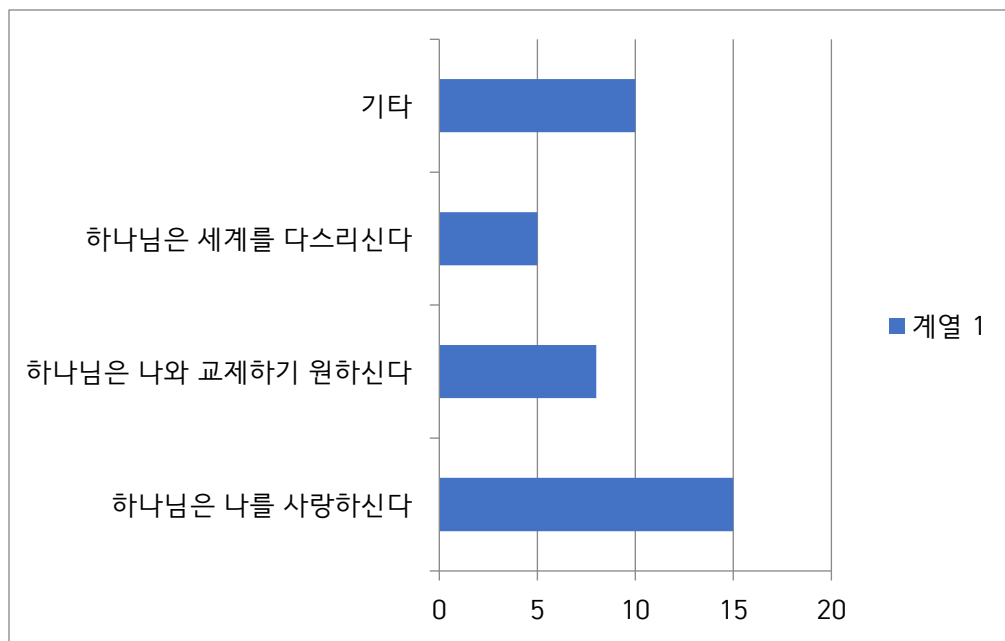
〈그림19〉 통성경프로그램 이수 후 성경에 대한 이해도



9주간의 통성경 프로그램 이수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이해도를 조사한 결과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고등부 전체 학생모두 80%까지 상승하였다. 특히 고1학생들의 상승도는 가팔랐다. 고1학생들은 중학교에서 올라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시도하려고 한다. 이전 고등학교 기독교교육을 접하다 보면 그 교육에 적응되어 빠르게 잠식되어 버릴 것이나, 통성경교육을 통해 새롭게 고등 기독교교육을 접하면 고2학생들보다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한다. 통성경 이후 학생들의 예배 집중도가 상승했으며, 설교를 하는 필자도 아이들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무엇보다 통성경 이후 아이들은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고 한다.

〈그림20〉 통성경프로그램 이수 후 하나님에 대한 인식 변화



통성경 프로그램 이수 후 아이들 중 절반이상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고백 되어졌다. 기존의 아이들은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분,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분 등으로 비꼈다면 통성경 프로그램 이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교제를 원하시고,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고백 되어졌다. 통성경을 통해 성경을 통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 또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이임을



알게 된다. 이것은 장년 들만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고 알면 아이들조차도 고백 되어지는 성경의 진수다. 성경을 모르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 나를 모르고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공부해야 하고 살아가는지 모른다. 이런 일이 MZ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통성경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질문수준이 향상되었다. 아래는 통성경 이후 나타난 학생들의 질문들 중 일부를 적었다.

질문1.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역사는 6천년가량 되고 공룡과도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학 시간에 배울 때는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 넘었다는데 무엇이 맞는 말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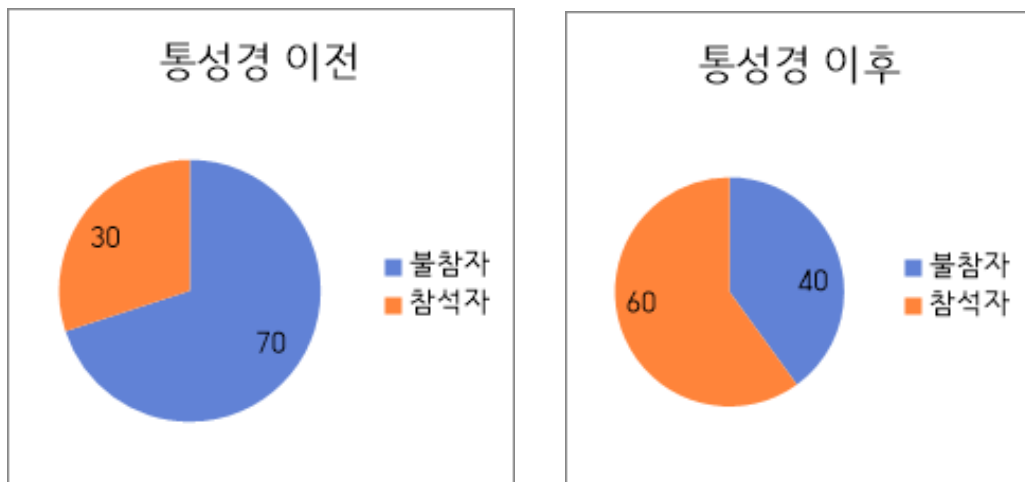
질문2. 삶 속에 예배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는 것으로도 삶의 예배가 되는 걸까요? 삶 속의 예배란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일 성소만이 아닌 평일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sup>88</sup>

학생들이 통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생각하는 폭이 넓어졌고, 깊어 졌다. 특히 예배를 어떤 의식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러나, 통성경을 통하여 예배란 더 확장된 개념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임을 고백하게 되는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평일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도, 삶의 예배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곧 예배라고 알게 되었다. 통성경프로그램은 성경과 교회안에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사고를 교회밖까지 확장시키는 역할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서의 생활반경을 교회안으로 가져오게 되어, 역시 교회 출석도

<sup>88</sup> 통성경 이후 나타난 학생들의 신앙과 예배에 대한 질문 : 다양한 질문들이 이어졌고 그 수준은 이전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깊어졌다. 질문 모음집에서 두가지를 골랐다.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동반했다. 학생들의 사고의 변화는 곧 행동의 변화로 이끌었다. 예배출석을 부모의 요청으로 인해 마지못해 다니던 학생들이 통성경을 통해 성경이 무엇인지 알게 되자, 예배에 왜 참석해야 되는지 스스로 깨닫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곧 학생들의 예배 참석률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MZ세대의 특징 중 하나인 공유플랫폼이 작동되어 학생들끼리 서로 공유되어 예배참석을 서로 격려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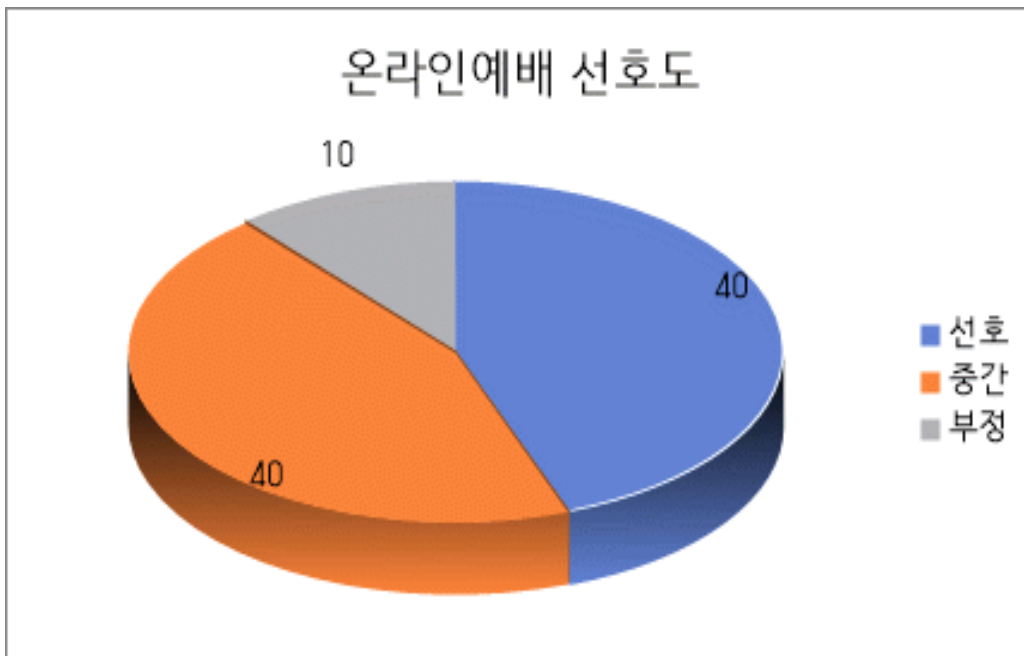
〈그림21〉 통성경프로그램 이수 후 예배 참석률 변화



MZ세대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듯이 통성경은 신앙과 삶을 하나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영적인 흐름을 세상밖으로 흐르게 한다. 아이들은 바이블 통트랙스 9주차 교육을 이수하기 전에 이미 예배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나갔다. 이는 통성경의 영향력이 예배와 삶에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통성경

프로그램의 결과는 온라인 예배에서 오프라인 예배로 나오는 아이들의 수를 눈에 띄게 증가시켰다. 통성경 이전에 예배에 불참하던 아이들의 수는 통성경 이후에 예배에 자주 보이기 시작했다. 앞서 MZ세대의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인식은 과반수가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온라인예배는 다양한 허점을 보이며 특히 신앙이 덜 자란 학생들에게는 좋지 않은 뿌리를 내리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바이블통트랙스 이후 온라인 예배를 선호했던 학생들이 이제 오프라인 예배에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림22〉 통성경프로그램 이수 후 온라인예배 선호도 조사



코로나 이후 온라인 예배 선호도에 있어서 긍정적 반응이 다수였지만,

바이블 통트랙스 이후 중간입장을 취하는 아이들의 수가 급증했으며, 온라인 예배는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아이들까지 나타났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는 MZ세대의 특징은 온라인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런데 바이블통트랙스 이후 아이들의 변화는 그 기울기가 온라인 중심에서 다시 오프라인 쪽으로 옮겨오게 만드는 변화가 있었다. 오프라인 예배에서 경험하는 예배를 다시보는 인식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교유가 시대에 하이브리드 차가 유행이다. 연료와 전기를 병행해서 움직이는 차다. 코로나19 이후 하이브리드 처지가 나타났다. 얼떨결에 교회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특히 MZ세대는 하이브리드를 원한다. 하이브리드 처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영역 모두를 매우 진정성 있게 돌보고, 동일한 관심으로 본다.<sup>89</sup> 이제 하이브리드 처치는 일시적인 트렌드로 사라져버릴 모델이 아니다. 하지만, 통성경은 이런 시대현상에 일조하지도 않고, 방조하지도 않는다. 통성경은 전혀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다.

### 가정에서 통성경 프로그램 적용

기독교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성경을 배우는 것은 기독교부흥과 회복의 첫 관문이다. 조병호는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21세기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출구입니다.”<sup>90</sup>라고 말한다. 가정에서 기독교교육이 실시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의 교회교육은 효과가 떨어지거나 상실된다. 교회교육의 출발은 가정이다. 이에 필자는 장성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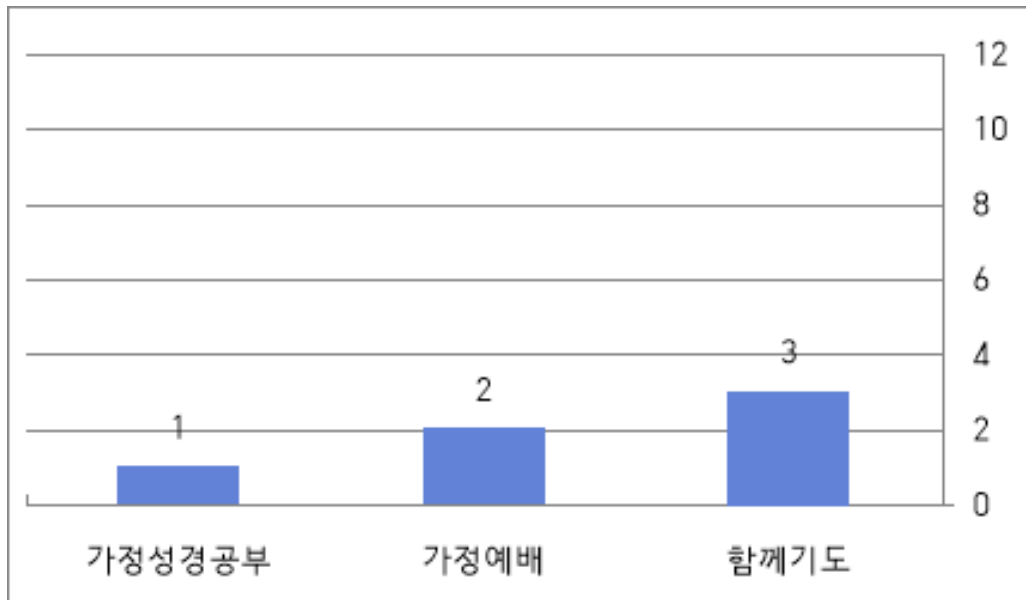
<sup>89</sup> 지용근 외, *한국교회 트렌드2023*, 77.

<sup>90</sup> 조병호,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9

교육부에서 중고등부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 12가정을 선별하여 통성경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가정에 실시한 통성경프로그램은 통성경통독을 통해 실시하였다.

가정에서 성경공부는 가장에게 성경공부를 위한 선별 지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차후 통성경지도자 반을 개설해서 가정에서 가장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가정에서 통성경읽기를 통해 MZ세대의 자녀들의 변화와 가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가정예배를 통해서 성경읽기를 한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림23〉 통성경프로그램 전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현황



한 가정이 성경공부를 실시하고 있었다. 학부를 신학교를 졸업한 신실한 고등부 교사 가정이었다. 그 외 가정에서는 성경공부를 포함한 성경에 대한 나눔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가정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앞서 성경공부를 하는 가정을 포함한 가정수다. 필자의 가정은 일주일에 두 번 가정예배를 드린다. MZ세대 자녀를 둔 가정들 특히 중고등학교 자녀들을 둔 가정들은 자녀들과 시간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가정예배와 가정성경공부를 실시하기에 제약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식사시간 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함께 식탁에 모일 시간을 맞추기도 어려운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결국 통성경성경읽기를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번에서 두 세번 밖에 실시할 수 없음을 알았다. 주일을 포함해서 평일 한번 두 번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신청 받은 열두가정에 조병호의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에 나오는 365일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아래는 가정에서 실시한 성경통독의 10일 동안의 커리큘럼이다.

〈표7〉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365일로 공부하기<sup>91</sup>

1일	창1~2장	천지창조- 심히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
		최초의 진정한 설계자이시며 디자이너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설계도를 펴시며 기뻐하십니다
2일	창3~5장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계획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3일	창6~9장	노아 홍수-하나님의 눈물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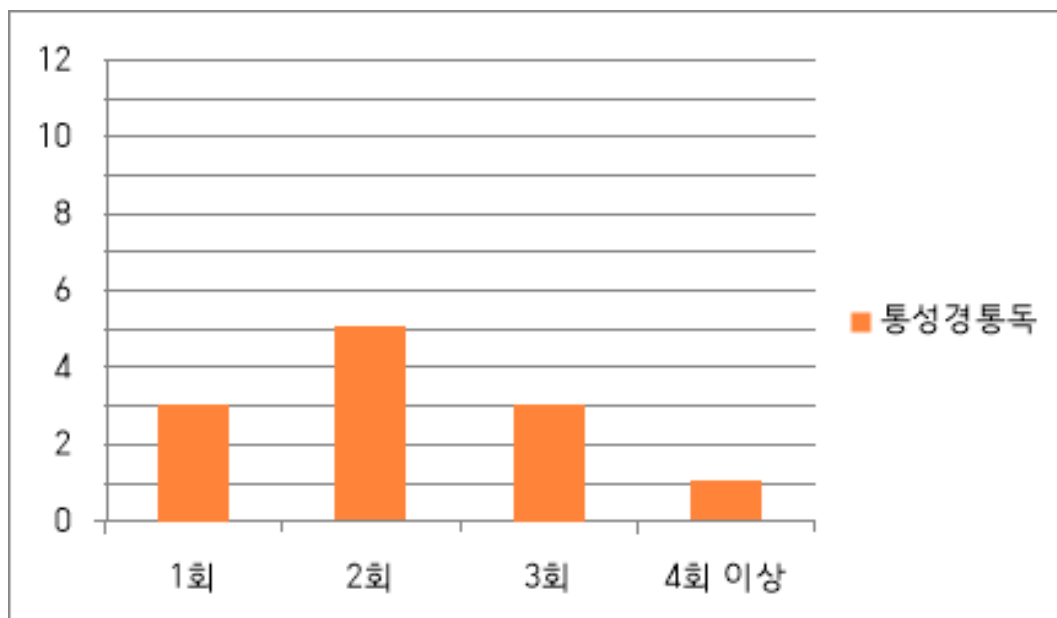
<sup>91</sup> 조병호,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35.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만들고 구원받습니다.
4일	창10~11장	생육하고 번성하여 흠어지는 민족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였으며, 바벨탑 사건을 통해 지면 곳곳으로 흠어지게 됩니다.
5일	창12~14장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람의 순종
		자손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에 대한 아브람의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6일	창15~17장	아브람의 기다림
		아브람은 자손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람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7일	창18~21장	복의 통로 아브라함
		끝까지 심판을 유보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하는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8일	창22~24장	하나님의 친구가 된 아브라함
		요구사항 자체보다는,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통하는 친구가 됩니다.
9일	창25~27장	이삭의 양보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하는 이삭의 삶의 방식은 그를 통해 복의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10일	창28~30장	하란으로 도망간 야곱
		하나님의 언약은 형을 피해 도망가는 야곱에게 이어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란으로 가는 야곱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	--	-------

앞의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매일 성경을 두장에서 세 장을 읽었다. 매일 읽으면 좋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여의치 않는 가정에서는 일주일에 두세번을 정하여 성경통독을 실시하였다. 반드시 부모와 자녀와 함께 모여서 읽게 하였고, 부모가 커리큘럼에 나온 그날 성경의 주요요지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도록 하였다. 성경을 파편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책자를 통해 큰 틀을 계속해서 잡아주도록 하였으며, 단톡방을 만들어 일주일에 한번씩 진행사항을 보고받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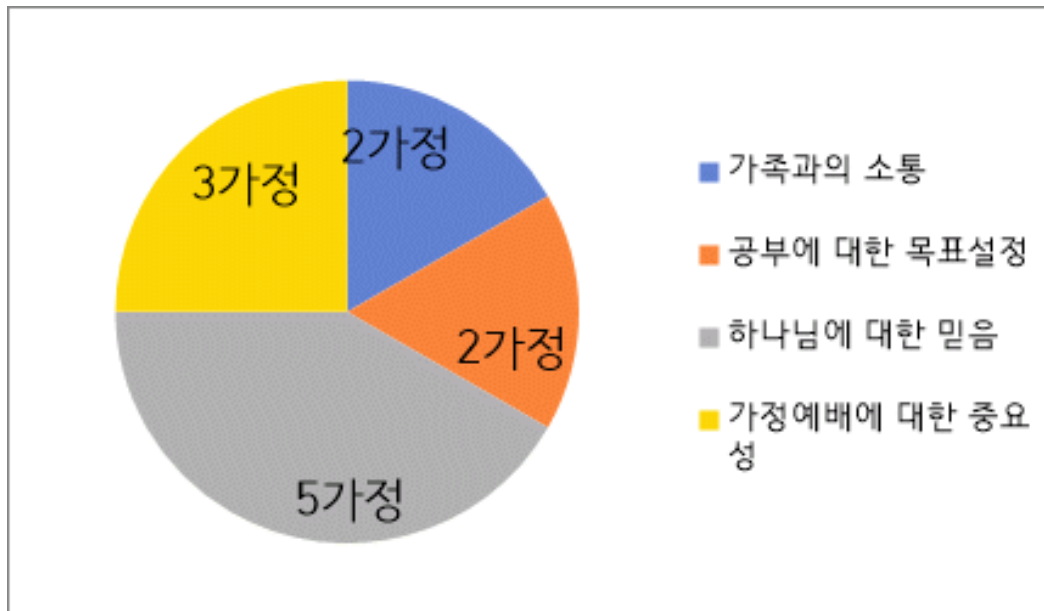
〈그림24〉 가정 별 일주일간 통성경통독 실시현황





앞의 그림을 보면 통성경 통독을 일주일간 1회 하는 가정이 세 가정, 2회하는 가정이 다섯 가정으로 주를 이루었다. 조사 결과 주일에 한번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한번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함께하는 성경통독은 MZ세대에 있어서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초등학생 이하의 학생을 둔 가정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나마 충분했지만, 중학생이상의 학생들을 둔 가정들은 학교와 학원시간 때문에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단 1회의 함께하는 가정교육도 상당한 기독교교육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신했다.

〈그림25〉 통성경통독 진행 이후 변화된 점은



통성경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별로 조사 결과 MZ세대를 둔 가정에서 자녀들이 신앙의 변화를 경험했다. 특히, 중학교 자녀를 둔 가정에서

사춘기를 맞아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통성경통독을 하며 부모의 지도와 나눔을 통해 변화를 경험했다고 한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고백하였다. 통성경통독을 통해 가정예배도 살아났다.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던 가정들이 통성경통독을 통해 가정예배를 겪었으며, 함께 읽고, 함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가정에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와 찬양을 통한 서로에 대한 가족애가 돈독 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MZ세대가 가져야 할 비전에 대한 목표가 확실하여 졌으며, 그들이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가정을 통한 통성경통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제 그 수를 더해가고 있다. 이제 통성경 지도자반을 편성하여 가정의 가장을 통성경 리더로 양육해 전문적인 가정교사를 두고자 한다.

## V. 결론

### 연구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MZ세대의 정의를 내리고, 그들의 신앙교육을 통해 기독교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교회를 다시금 세우는 일에 있다. 교단의 분열 및 교회 곳곳에서의 흩어짐 현상은 본 연구의 필요성을 가져오는 출발점이 되었다. 연구자가 이 연구를 시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소는 통성경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고 이를 MZ세대 및 다양한 세대에 적용하면 신앙교육의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이에 먼저 I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신앙적으로 침체되며, 교회에서 흩어지고 있는 MZ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그것을 위한 방법으로 통성경프로그램이라고 보았다.

II장에서는 각 세대별 이해와 특징에 대해 나열하였다. MZ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MZ세대 뿐만 아니라, 그 이전세대와 앞으로 나타날 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에 밀레니얼 세대, Z세대, MZ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특징과 문화를 알아보고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지 조명해 보았다.

III장에서는 MZ세대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세우는가를 기독교교육의 핵심과제임을 제시하면서 이에 본 연구에 있어서 조병호의 통성경프로그램을 제안한다. MZ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한 방법으로서 통성경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며,

통성경을 성경적, 신학적, 목회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통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성경읽기와 공부방법을 알아보았다.

IV장에서는 통성경프로그램의 이론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통성경을 통해 우리의 성경을 대하는 방식은 통전적이 되어야 한다. 성경의 중요한 정신과 관점을 놓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통으로 엮어야 온전하고 분명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다. 또한 공시적 통시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변화는 시대를 공시적으로 보며, 통합해서 보는 통시적인 관점을 요구한다. 통성경을 통한 문화이해를 이루며 문화를 통합해서 하나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함을 말했다. 이 모든 것은 교회와 사회와 전반적인 삶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기틀이 될 것이다.

V장에서는 MZ세대 신앙교육을 위한 현장 별 통성경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와 변화된 모습을 통계화 하여 제시하였다. 교회학교 성경공부의 현실과 이로 인해 이어지는 교회교육의 모습을 교사와 학생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통성경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그들의 변화와 교육현장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 VI에서는 요약과 평가를 기술하였다.

## 결론 및 제언

MZ세대가 다음세대의 중심이 되었다. MZ세대는 완전히 성장한 세대라고 하지만, 중간세대이다. 이것은 이제 MZ세대가 또 다음세대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위치까지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MZ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은 교회가 은 교회가 중점적으로 행해야 할 필수적인 교육의 핵심사항이라고 하겠다. 다양한

문화의 변곡점의 중심에 있는 MZ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한다. MZ세대는 코로나19기간을 거치면서 교회밖으로 흩어졌다. 또한 그들이 가지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겹치면서 MZ세대의 신앙의 현주소는 바닥으로 향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MZ세대 신앙교육을 위한 방법은 결국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설 수 있는 길을 여는 방법은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국 성경이기 때문이다. MZ세대는 하나로 대변되는 통세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긴 것을 싫어하고, 한가지를 여러 개로 나열하는 것을 지양한다. 성경66권 전체를 권 별로 나열하는 것은 MZ세대의 가슴에 다시금 불을 던질 수 없다. 성경66권 전체가 중요함을 전하고, 성경을 부분이 아니라 통으로 전하는 방법은 MZ세대에게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신앙교육과 성경공부의 방법이 될 것임을 자신한다.

잠언의 말씀처럼 해 아래 새것은 없고 세대는 돌고 돈다. 한세대가 가면 다음세대가 오지만, 결국 그 세대도 이전세대의 모습을 닮게 된다. 오늘날 기독교공동체는 겉으로 세대별 분열이 심각하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은 통성경공부가 확실한 대안이 될 것이다. 성경프로그램은 MZ세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를 연결하며, 신앙을 증진시키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교회 다음세대의 출구는 성경이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통성경화해서 가르치는 통성경이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번역서적

- 레너드 스윗. *관계의 영성*. 윤종석 역. 서울: IVP, 2007.
- 레너드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 로드니 스타크. *기독교의 발흥*. 손현선 역. 서울: 좋은 씨앗, 2016.
- 바비 피더. *세대 감각*. 이영래 역. 서울: 어크로스, 2022.

### 한국어서적

- 장성운. *몰트만 신학에서 그리스도론과 교회론의 상관관계*.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2.
- 이은형. *밀레니얼과 함께 일하는 법*. 서울: 옛워크, 2019. 22
- 임홍택. *90년생이 온다*. 서울: 웨일북, 2018.
- 대학내일20대연구소.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0: 국내 유일 20대 전문연구소의 요즘 세대 본격 관찰기*. 서울: 위즈덤하우스, 2019.
- 김태형. *풍요중독사회*. 서울: 한겨레출판사, 2022.
- 김효정. *MZ세대 사용설명서*. 과주: 넥서스BIZ, 2022.
- 지용근 외. *한국교회트렌드2023*. 서울: 규장, 2022.
- 김상권. *청년실종, 공동체성으로 공략하라*. 서울: 크리스천리더. 2012
- 권이중 외. *청소년문화론*. 경기: 공동체, 2010.
-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통독원, 2018.
-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2.
-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지침서* 서울: 통독원, 2020.

- 조병호.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서울: 통독원, 2012.
-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16.
- 임경수. *마음에 집이 없는 사람들*. 서울: 학지사, 2015.
- 임만호.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온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7.
- 고성준. *카이로스1하나님의 시공간*. 서울: 규장, 2020.
- 최현식. *코로나 이후3년 한국교회 대담한 도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20.
- 이윤석. *4차 산업혁명과 그리스도인의 삶*.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8.

## 논문

- 방대현. “어린이 성경통독에 관한 연구.” 목회학박사학위논문, 드루대학교, 2019.
- 김찬영. “2030밀레니얼 세대 가나안성도현상에 관한 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22.
- 박제현. “MZ세대의 미디어콘텐츠 소비 패러다임 연구 - 4차 한류와 레트로 현상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2021.

## 부록

### MZ세대(청소년) 통성경 교육을 위한 설문조사

1. 오늘날 학교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올바른 인격과 전인적인 발달을 도와주는 아주 유익한 곳이다.
  - 2)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학생들의 전인발달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 3) 공부하는 일은 재미없지만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 다닌다.
  - 4) 그저 그렇다.
  
2.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공부하고 있습니까?
  - 1) 세상의 이치를 터득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참다운 지혜를 얻기 위해서
  - 2) 일류대학의 인류학과에 들어가서 남들에게 대접받고 살기 위해서
  - 3) 내가 장래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 4) 높은 점수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 5) 공부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부모님이나 주위에서 강요하니까.
  - 6)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3. 당신에게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 1) 친구문제.
  - 2) 가정불화.
  - 3) 교회활동.
  - 4) 공부와 진로문제.
  - 5) 성격문제.
  - 6) 교회 안가면 부모에게 혼나는 문제.



7) 노는 시간이 없어 괴롭다.

4. 자기의 깊은 고민은 주로 누구와 이야기합니까?

- 1) 교회 선생님 또는 전도사님.
- 2) 부모님.
- 3) 친구.
- 4) 학교 선생님.
- 5) 교양도서
- 6) 혼자서.
- 7) 기타 (다른 방법이 있다면)

5.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학교생활-공부하는 일, 품행, 대인관계, 선행 등에서 불신자 친구들과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1) 대체적으로 불신자 친구들보다는 낫다.
- 2) 그리 큰 차이를 못 느끼거나 더 심할 때가 있다.
- 3) 그저 그렇다.

6. 5-1) 더 낫다고 응답한 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 ② 기독교인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마음과 말씀에 어긋난 생활은 되도록 자제해야 하기 때문에.
- ③ 사영리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 ④ 우리 교회는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확실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 ⑤ 아무래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약간이라도 알고 실천하기 때문에.

- ⑥ 나랑 굉장히 잘 통하기 때문에.
- ⑦ 불신자 친구들은 조그마한 일에도 싸움을 하고 옷차림이나, 하는 행동들이 불량스럽다. 하지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언제나 친구스럽고 따뜻하며 우정이 오고 갈 수 있다.
- ⑧ 공부는 모르겠으나 대인관계나 선행에 있어서는 분명히 더 낫기 때문에.
- ⑨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차별대우가 있으나 교회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사이 좋게 지내기 때문에.

7. 5-2) 더 나을 것이 없다고 응답한 자,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 ① 세상 유혹이 너무 강해서.
- ②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형식적인 교인이 많다.
- ③ 남들이 나가니까 그냥 덩달아 나가는 사람이 많다.
- ④ 교회가 신자를 끌어가려고 하는 것에만 신경 쓰고 참다운 신앙을 갖게 하는데 신경을 덜 쓴다.
- ⑤ 신자들도 불신자들의 생활에 동화되어서.
- ⑥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 ⑦ 교회 다닌다고 해도 그리 깊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 많다. 교회에도 못된 친구가 있는가 하면 학교에도 착한 친구가 많기 때문에.
- ⑧ 깊은 신앙보다는 거의가 이성교제를 위해서 교회 나온다.
- ⑨ 교회 안에서 와 밖에서의 행동이 다르다.
- ⑩ 교회 다니는 진정한 목적이 없는 사람이 많다. 진짜 하나님을 영접한 것인지 신자들의 진짜 속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 ⑪ 아직까지는 그리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보지 못했다. 안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내 주위 친구들 대부분은 교회 오빠를 만나기 위해서 다닌다.
- ⑫ 우리 교회를 가면 여의도 교회여서 사람이 많은데 학생들이 날라리처럼 하고 다

니고 욕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 불신자와 차이를 못 느낀다

- 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 항상 죄책감 같은 것이 느껴진다.
- ⑭ 입에선 찬양이 아닌 다른 아이들과 같이 가요를 부르거나 유행을 쫓아간다.
- ⑮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별로 생색 내지 않기 때문에.
- ⑯ 엄마가 강요해서
- ⑰ 사람은 사람으로서 인격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무슨 종교 이든지 서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⑱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욕을 더 많이 한다.

8. 당신은 공부로 인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 1)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집이나 학교에 들어가기 싫을 때가 많다.
- 2) 그 정도는 아니지만 고통이나 스트레스가 적지 않다.
- 3) 별로 받지 않고 있다.
- 4) 스트레스는 없으며 오히려 공부하는 일이 즐겁다.

9. 교회 중고등부의 설교나 성경공부 혹은 개인 상담을 통해서 공부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나 열등감 혹은 자기를 미워하는 감정 등을 치유 받은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10. 만일 없다면 그런 스트레스는 주로 어떻게 풀어 버립니까?

- 1) 가출하거나 누구와 시비를 걸어 싸운다.
- 2) 스트레스를 발전의 계기로 삼고 더욱 분발한다.
- 3) 교회 속에서의 친구관계나 여러 행사로 잊어버린다.
- 4) 오락실이나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놀아버린다.

- 5) 그냥 혼자 속 상해하며 잊어버린다.
- 6) 성경이나 기타 서적을 읽는다.
- 7) 운동하거나 새벽기도회에 간다.
- 8)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함께 합의점을 찾는다.
- 9) 이성친구와 만나 이야기한다.

11. 교회에서 공부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교육받은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12. 교회에서 공부는 왜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까?

- 1) 그리스도인이 남의 머리가 못되고 꼬리가 되면 남들이 손가락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므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높여야 한다.
- 2) 공부는 복음전파와 아무런 상관은 없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단이므로 하긴 해야 하겠지만 그 때문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해서 안된다.
- 3) 공부는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는 일이므로 그 자체로 아름다운 일이다.
- 4) 공부를 열심히 해서 소질에 맞는 직업을 선택한 후 그 직업을 통해서 이웃에게 봉사해야 한다.

13. 교회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불만이 있다면 무엇인가?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표시하세요)

- 1) 성경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2) 학교에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너무 모르고 관심이 없다.
- 3) 학생회가 연애하기 위해서 온 아이들이나 꺾렁꺾렁한 아이들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다.

- 4) 너무 교회 중심의 프로그램만 많고 학생들이 실제생활에 도움되는 내용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
- 5) 기도와 찬양 같은 시간이 힘이 없다.
- 6) 불만 없다.
- 7) 중고등부의 운영면에서 고등부 학생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무관심하다.
- 8) 어른들의 권위의식이 너무 세고 보수적이다.
- 9) 적극적으로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어서 안타깝다
- 10) 기도 안 하는 애들 때문에 기도하는 게 쑥스럽고 눈치 보인다.
- 11) 나와 남이 비교되고 있다.
- 12) 설교시간에 나와 동떨어진 내용을 한다.
- 13) 예배 시간이 길다.

14.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무엇인가?

- 1) 구원과 영생,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다.
- 2) 교회 중고등부에서 누구를 좋아하고 있다.
- 3) 중고등부의 일이 너무 많아서 벅차다.
- 4) 교회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 5) 공부와 신앙생활을 조화 있게 병행하지 못하겠다.

15. 시험기간의 주일성수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1) 공부도 하나님의 일인 이상 시험기간엔 교회에서 나와 공부하러 갈 수도 있다.
- 2) 주일에 공부하는 일은 신앙에 올바르지 못하지만 현실상 어쩔 수 없으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빠지거나 예배시간에 일찍 나올 수 있다.

- 3) 아무리 시험기간이라도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보낸다.
- 4) 주일날 공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자체를 모르겠다.
- 5) 별 생각없이 그 때 그 때 생각대로 결정한다.

16. 부모님에게 바라는 글이나 교회의 교사 또는 목사님(전도사)에게 하고 싶은 말  
(사실대로 적어주세요)

### **MZ세대(청소년) 통성경프로그램 실시 후 신앙변화조사**

1. 이번 통성경 성경공부의 참여는 누구의 권유로 결정했나요?

- 1) 선생님의 설득
- 2) 친구의 권유
- 3) 부모님의 권유
- 4) 목사님의 설교

2. 이번 통성경 성경공부를 위해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였나요?

- 1)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 2) 생각만 하고 기도는 안 했다.
- 3) 한번쯤 기도했다.
- 4)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3. 통성경 성경공부를 참석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 1) 학교공부

- 2) 과외학습 또는 학원수업
  - 3) 부모님의 반대
  - 4)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4. 통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서 친밀감을 느끼고 있나요?
  5. 통성경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6. 통성경 프로그램이 내 삶의 의미와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나요?
  7. 통성경 성경공부에서 가장 은혜스러웠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생각 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8. 통성경 성경공부에서 무엇을 느꼈나요?
  9. 통성경 성경공부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10. 통성경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 V I T A

### PERSONAL DATA

Full Name: Gyehyeon Jo

Place and Date of Birth: Busan, South Korea, January 23, 1976

Parent's Names: Imyong Jo / Jeomsun Ok

###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b>Dongui Technical High School</b> 50, Yangji-ro, Busanjin-gu, Busan,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10, 1994
Collegiate: <b>Young-Nam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b> 26, Bonghoe 1-gil, Jillyang-eup, Gyeongsan-si, Gyeonsangbuk-do, Republic of Korea	Th.B	Feb 10, 2011
Graduate: <b>Young-Nam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b> 26, Bonghoe 1-gil, Jillyang-eup, Gyeongsan-si, Gyeonsangbuk-do, Republic of Korea	M.div	Feb 10, 2014
Graduate: <b>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b> 251, Gwangjang-ro 5-gil, Gwangjin-gu, Seoul, Republic of Korea	Th.m. in Min	Feb 14, 2019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Gyehyeon Jo

Name typed

February 24, 2023

Date